

통합치료연구

제6권 제2호

한국통합치료학회

한국통합치료학회 임원진

회 장 : 선우현(명지대학교)

부 회 장 : 홍혜영(명지대학교)

총 무 : 곽은미(명지대학교)

편 집 위 원 회 : 강순미(백석예술대학교) 심혜원(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국제교류위원회 : 권수진(Maryville University)

윤 리 위 원 회 : 이은경(명지대학교) 최광현(한세대학교)

홍 보 위 원 회 : 송민애(연세대학교) 유경훈(송실대학교)

학 술 위 원 회 : 최예린(명지대학교) 조민자(고려대학교)

간 사 : 권순형 양민교 공정윤

감 사 : 김수지(이화여자대학교) 김은연(명지대학교)

< 차 례 >

- 중년 미혼 여성의 삶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결혼관을 중심으로-
채재희 5
- 놀이·음악 통합치료가 발달지체아동의 상호주의하기와 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문은현·선우현 29
-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자기용서의 조절효과
임원범·홍혜영 55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 74

<별첨 2> 투고규정 / 77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 78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 85

중년 미혼 여성의 삶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결혼관을 중심으로 -

채재희*
성균관대학교

이 연구는 중년 미혼여성의 삶의 본질은 어떠한가에 대해 결혼관을 중심으로 본 질적 연구이다. 연구 방법으로 Max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적용하였으며 장기간 직장경험을 가지고 있는 38세~42세의 미혼여성들을 심층 면담하였다. 실존하는 대상에 대한 조사와 그것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의 분석과 해석학적 글쓰기 과정을 통해 그들의 삶의 본질을 관찰하고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연구를 축약하여 드러낼 수 있는 현상학적 주제어로 ‘삶의 의미부여’, ‘선택의 갈림길’, ‘삶의 갈증’, ‘멈추지 않는 간섭’, ‘떨림의 상실’, ‘자녀양육에 대한 염려’ 등을 추출할 수 있었다. 그러한 현상의 중심에는 ‘타자의 시선으로 인해 갇히고 거부된 욕망’이라는 자기소외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중년 미혼여성의 삶과 그들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생각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중년 미혼여성의 삶에 대한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이 연구가 그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더 나은 삶을 일구어가는 데 있어 긍정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핵심어 : 중년 미혼여성, 결혼관, 자기소외, 타자의 시선으로 인해 스스로 갇히고 거부된 욕망

* 본 연구는 채재희(2010)의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중년 미혼여성의 삶에 관한 현상적 연구: 결혼관을 중심으로”를 수정 및 요약한 논문임.

* 교신저자: 채재희(cjhshine@nate.com)

■게재 신청일 : 2014년 11월 17일 ■최종 수정일 : 2015년 1월 20일 ■게재 확정일 : 2015년 1월 23일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중년 미혼여성의 수는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2014)의 자료에 의하면 66년~75년생은 6.2~7.6%로 미혼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40~44세는 468,004명, 45~49세는 391,715명이다. 이러한 중년 미혼 여성의 증가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 자녀양육과 교육관 등 과거보다 자기주체성의 확립이 요구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주제에 관해 기존 관련연구에서는 중년 미혼여성들이 삶 속에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사회관계 속의 갈등 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러한 분석은 정작 중년 여성이 미혼이라는 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오히려 미혼이라는 점이 그들의 삶에서 미치는 영향이 훨씬 넓고 중대한 요소가 되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중년 여성의 삶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보는 데 있어 결혼관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연구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의문이 들었다. 중년 미혼여성인 현재의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왜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회적 통념의 틀과 부딪히며 불리한 조건에서 많은 갈등을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일까. 정말로 자신 내면으로부터의 욕구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 자신의 내면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주도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에 기초해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 미혼여성에게 가지고 있는 욕구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들여다봄으로써 그들이 삶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한편 그들이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었다. 중년 미혼 여성 스스로도 결혼을 하느냐, 독신을 유지하느냐에 대한 진정한 내면의 욕구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심층 면접 과정에서 스스로 발견해나가기도 하였다. 삶에 대한 자기인식의 깊이가 연구 참여자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결혼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욕구와 가치도 있었다. 하지만 결혼은 중년 미혼여성의 내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현실은 결혼을 하지 않아 그들이 가지는 자기소외, 삶의 불안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들의 내면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의미있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중년 미혼 여성의 삶의 본질과 의미는 어떠한가를 결혼관을 중심으로 탐

색하고자 하였다. 그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과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연구를 축약하여 드러낼 수 있는 현상학적 주제어로 ‘삶의 의미부여’, ‘선택의 갈림길’, ‘삶의 갈등’, ‘멈추지 않는 간섭’, ‘떨림의 상실’, ‘자녀양육에 대한 염려’등이 있었다. 그러한 현상의 중심에는 ‘타자의 시선으로 인해 같히고 거부된 욕망’이라는 자기소외가 자리 잡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적용하여 중년 미혼여성의 이야기를 탐구해 봄으로써 그들의 내면의 욕구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현상학은 개념화와 범주화를 반성하는 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반성 이전에 직접 겪는 대로의 세계, 자기 생활세계를 연구하고 체험한 의미나 실존적 의미를 연구하는 방법이다(신경림 역, 1997). 따라서 질적 연구 방법 중,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적용하여 특히 중년 미혼여성의 삶을 현상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연구 참여자가 어떠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지, 어떠한 공통된 삶의 규칙을 가지고 그들의 욕구와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를 통해 중년 미혼여성의 삶과 그들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생각 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중년 미혼여성의 삶에 대한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제 역할과 더 나은 삶을 위한 긍정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II. 선행연구 검토

중년 미혼여성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고민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들을 체험의 형식으로 드러내 볼 필요가 있다. 중년 미혼여성들이 갖고 있는 갈등을 일으키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배경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했다.

중년기는 일반적으로 약 40~60세 사이의 기간이다. 독신의 나이의 경우, 30대는 과도기이고, 40대는 평생 결혼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시기이다. 50대는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시기이기에 삶에 대한 만족도는 50대 여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이혁구(1999년)는 중년의 새로운 삶의 목적과 계획을 재정립하여야 하며 심리내적인 통찰을

통해 그 동안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억압되었거나 등한시 되어온 자신의 내적 욕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새로운 잠재력을 깨닫는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선택이 일어나고 삶의 구조에 변화가 일어난다. 삶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잊었던 갈등을 되살리고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다.

한편 결혼관은 가족 가치관의 일부분으로 결혼 및 동반자 선택에 대해 개인이 지향하는 규범 및 가치관을 의미한다. 이때 규범이란 개인의 행동유형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행동유형에 합리성을 부여하고 행동지향의 근거를 지시하는 것이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결혼관은 개인에게 동반자 선택과정 및 결혼 후의 생활설계와 관련된 행동유형을 결정하는 지침과 근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근대화의 과정을 겪는 동안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해방 이후 40년 동안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결혼은 제도적·현상적인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겪어왔다(유시중, 한유상, 1984). 그 과정에서 미혼여성의 증가는 특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인생의 가치적도 변화,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취업률 증가, 결혼적령기 변화, 남성에 대한 기대감 하락, 독신생활의 사회인식 변화, 결혼당사자의 의사 존중, 가족의 단위가 개인단위로 변화, 결혼이나 성에 대한 가치나 인식의 변화, 결혼에 대한 매력의 상실 등이 대표적 원인이다(김소라, 2009).

결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30~50대 고학력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애사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자신이 평생토록 결혼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경제적 주체로 인식하며 실질적 노후대비와 결혼과 자녀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는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이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과 일에 있어 그들의 부모가 일에 대해 가지는 가치관,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기대, 지지 등의 양육 및 교육관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양은주, 2005).

미혼 여성들은 경제적인 독립, 주도적 삶, 감각추구성향이 결혼에 대해 주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김이정, 송강영, 2013; 이운석, 구예리, 2008).

가족가치관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계획연령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성별, 가치관 영역,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르게 미치고 있다고 한다(진미정, 정혜은, 2010).

중년기 미혼여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혼형성의 현상, 중년기의 문화, 일과 삶, 가치관 영역(강은영, 2010; 고기숙, 김진숙, 이혁구, 김소라, 2007; 2004; 심경미, 2002; 양

은주, 2005; 여성연, 조희금, 고선강, 2010; 진미정, 정혜은, 2010; 정현희, 2011)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 연구는 실제 이들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을 살피는데 제한이 있다.

또한 중년 미혼여성의 삶의 유형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결혼과 동시에 출산을 필수로 여기고 전통적인 성역할에 맞추어져 있는 것에서 시작하여 비주체적인 성향에 대한 연구, 취업경험과 학력수준과 관련되어 주체성에 관한 연구(류연희, 2006; 서미경, 2010)등이 있다. 개인의 경험이 미치는 결혼관에 대한 이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성역할, 배우자의 선택기준, 생활양식, 의식변화, 교육수준에 의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혜영, 선보영, 김상돈, 2010; 반승원, 전범수, 2012; 서지희, 2009; 성미애, 2014; 우해봉, 2012)는 눈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피상적이지 않은 내면의 본질을 알아가기에는 기존 연구들은 중년 미혼여성들의 처해진 현실적인 조건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내적인 욕구나 가치를 알아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중년 미혼 여성이 정작 삶에서 본질적으로 느끼고 알아가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의 내면 어디에 삶의 의미부여를 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이 중년의 나이임에도 현실과는 부적응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년이 되어 자녀가 없는 삶을 돌아보았을 때 생애주기에 맞추어 발달적으로 해야 할 과업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취업경험을 통해 경제적인 능력을 확보해왔지만 향후 혼자서 스스로를 부양하고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이성 관계 면에서는 어린 시기에 연애에 초점을 두었다가 결혼에 대한 부담 안게 되는 것에 비해서는 중년이 되어 결혼하는 데 있어 연애 자체는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중년의 결혼에서는 중요한 자녀출산의 기회가 높지 않고 이로 인해 두 사람간의 장기적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끈이 약해지는 부담이 있다. 또한 중년이 되면서 노산으로 인한 불안감, 즉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또한 가족역할에 있어서 원 가족과 함께 사는 미혼여성과 혼자 사는 미혼여성의 역할이 다를 것 같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족역할이 요구된다는 점, 그럼에도 혼자서 살아내야 한다는 삶의 무게를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선행연구는 실제 삶과 연결되는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개개인 내면의 본질을 알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방향은 중년 미혼여성의 결혼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삶에 대한 방향성, 심리적인 부담 등에 대한 고찰은 미약

한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경제적 자립도와 심리적 독립심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결혼관과 출산의지에 관한 연구는 미혼남녀의 경제적 자립과 심리적 독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정진희, 2011; 주나연, 2012).

저출산의 원인 중 직접요인으로는 초혼연령의 상승, 이혼율 증가, 그리고 양육비용의 부담을 들 수 있다. 반면 간접요인으로는 개인주의 가치관 및 자녀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가족해체현상을 들 수 있다(강복화, 2003; 권태환 외 4인, 2000; 김승권, 2002, 2003; 김현미, 2001; 김혜수, 2003; 배현정, 2002; 배현정, 2003; 백승홍, 2003; 서소정, 2004; 안명옥, 2004; 옥선화, 2003; 유애광, 김인숙, 2002; 양경희, 2004; 이삼식, 2002; 장혜경, 2003; 조계완, 2003; 천혜정, 2004; 최경수, 2003; 장진경, 2005).

출산에 대한 욕구들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여성의 전문능력 향상의 기회와 여성의 자아실현욕구가 강해졌고 독신주의자들의 태도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저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혼여성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실제 욕구와 인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보고자 한다.

위의 연구들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성역할, 연령, 배우자의 선택기준, 생활양식, 의식의 변화 교육 수준 등 중년 미혼여성의 내면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년 미혼여성들이 삶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해가는 실질적인 행위로서 결혼에 대해 어떠한 체험을 하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 미혼여성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중에서도 결혼관과 관련하여 그들의 내면의 본질에 대한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다만 현상학적인 이해를 통한 이들의 주관적인 삶에서 체험하는 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이해는 미성숙한 채로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중년 미혼여성이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주관적인 세계를 경험하거나 이해하고자하는 데에는 미비함이 있다.

Ⅲ. 연구방법

1. 현상학

“현상학은 삶의 스타일에 관한 학문이다. 또한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내 경험의 흐름 안에서, 내 주관성 안에서, 타인의 주관성 안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을 끊임없이 그리고 새롭게 묘사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조절한다. 현상학은 최초의 드러남에 관한, 원형적인 드러남에 관한 학문이다. 그저 견디거나 하는 삶 또는 현상학적 환원 이전의 삶이 아니다. 삶의 의미는 매일 상실되며 따라서 회복되어야 한다.”(Paci, Enzo, 이찬웅 옮김, 2000). 삶의 의미는 단지 주의와 반성이 부족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며, 어리석은 싸움들과 타협 그리고 ‘나쁜 신념’ 속에서 우리가 결정적인 일이라고 믿는 자잘한 과제들은 삶의 한복판 위에서 상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시 찾아내고 실수를 태워버리고자 하는 어떤 열정이 있다. 우리 삶에서 열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삶을 지속하고 있는지 자신을 들여다봄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쫓기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나쳐 가고 있다. 자신의 삶의 스타일은 무엇인가를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현상학은 우리의 직접 경험에 주어진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성적 성취들의 층들을 점점 더 깊이 탐구해 감으로써 자연적 경험에 직접 주어진 것을 넘어서 근원으로 되돌아 간다(한전숙, 1998). 이것은 현상학적 환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인간경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현상학의 중심은 인간이며 인간을 세계와 시간 속에서 계속 진화하는 존재로 본다. 현상학은 이러한 살아있는 인간 경험을 기술하는 것이며 사건이나 현상의 실재에 접촉하는 총체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인간은 환경과 통합되는 개체로 세계는 자기 자신에 의해 모양지어지며 세계가 인간 자신을 모양짓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만의 실재를 가지고 있으며 현실은 주관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것이 주관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상학은 무엇보다 실재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연구 참여자가 겪은 체험이 연구의 대상인 것이다.

현상학은 그 어원을 통해 볼 때 ‘스스로 드러냄’ 즉 ‘스스로 드러내는 그 자체로 볼 수 있도록 해 줌’을 뜻한다. 그 어원적 의미에서 볼 때 현상학은 어떠한 선입견이나 이론적 개념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경험 세계의 근저에 있는 본질을 밝히려는 것이다(이

남인, 1996). 현상학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중년 미혼여성이 생활세계에서 드러나는 의식의 상호작용을 보며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일련의 현상학적 반성을 통해 이들의 체험과 그 내면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중년 미혼여성이 삶의 의미를 체험적으로 드러난 것을 토대로 그들의 내면세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들의 내면세계의 본질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식의 상호주관성을 통한 현상학적 반성이 요구된다. ‘결혼관을 중심으로 본 중년 미혼여성의 삶의 본질은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에 대하여 선입견을 배제하고 그들의 경험과 내면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

해석학적 현상학(hermeneutic phenomenology) 연구 방법은 발견지향을 특징으로 한다. 현상학 중에서도 해석학적 방법을 지향을 하는 연구자들은 생활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세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종 객관성·중립성은 달성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다는 것, 즉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싫증을 느끼고 즐거움을 원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한 느낌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기술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면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다(van Manen, 1994).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탈피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적인 사실성에서 출발, 참 이해의 과정에 참여해봄으로써 그 의미를 추구하고자 한다. 중년 미혼여성의 삶의 규칙을 들여다보고 하나의 공통된 의미구조를 가지고 주제를 발견하는 작업을 해나가고자 한다. 각자 가지고 있는 정서체계는 다르지만 중년 미혼여성이 공통적 차원에서의 발달과 상실 등을 들여다봄으로써 자기정체성도 상대방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3.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6월 25일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주로 심층면담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참여 연구자에 대한 연구자의 면담 시 사용한 메모와 면접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생활상황을 배려하여 면접횟수는 1~2회 진행하였으며, 1시간~2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담장

소는 비밀보장이 가능한 세미나 룸과 연구 참여자의 사무실 등에서 진행되었다.

본 자료는 자료수집의 중요한 원리인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상 연구 참여자에게 사전질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질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심층면담 시에는 질문지를 통한 반 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였다. 심층면담 후에도 연구 참여자에게 다시 메일과 전화로 면담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여 자료가 충분히 포화될 때까지 자료 수집을 하였다. 면담내용을 녹취하여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정확히 필사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자·연구 참여자와 지지집단과의 소통에서 개방적인 태도로 진행과정을 검증하고 수정해감으로써 현상학적 연구의 엄격성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선 본 연구에서는 중년 미혼여성의 삶을 과거,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 연장선상에서 살펴보고 무의식 속 갈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4.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소개로 목적표집으로 모집하였다.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목적표집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장기간 직장경험을 가지고 있는 38세~42세의 미혼여성들로 구성된 목적표집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 참여자	나이	결혼여부	직업	학력	거주 지역	동거여부
연구 참여자 A	40	미혼	프리랜서	대학원졸	서울	자매
연구 참여자 B	38	미혼	연구원	대학원졸	서울	자매, 형제
연구 참여자 C	38	미혼	자영업	대학원졸	서울	모
연구 참여자 D	38	미혼	회사원	고졸	서울	부모
연구 참여자 E	40	미혼	회사원	고졸	대구	모

5. 자료의 분석 및 연구의 엄격성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적 내용이 기술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시작 전에 연구

목적과 방법, 연구자 소개, 연구 참여자의 권리보장과 비밀유지, 면담내용의 녹음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심층면담이 끝난 후 녹취된 자료에 대해서도 연구 참여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담¹⁾ 내용이 들어있는 녹음파일을 원자료로 만들고, 이메일을 통한 내용과 연구메모 등을 다시 읽어보면서 일반범주에서 중간범주와 중심현상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 참여자를 통해 들은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보편적인 특성과 고유한 특성을 함께 분석하기 위해서 원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중년 미혼여성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각 사례의 독특성을 개별적으로 분석 한 후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중심현상이 드러날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범주화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추가질문을 했고, 면담 후의 자신이 통찰되고 생각 되는 점에 대해서 전해주었다. 면담을 할 당시와 한 뒤 자신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느끼며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의 또 새로운 이야기가 생성되어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전의 친분을 가지고 있던 관계에서 조금 더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체험을 하기도 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자의 주관성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의 객관적 분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도 자료 분석의 과정에서 또 다른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항상 염두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다시 되새기며 그 의미를 포착해 가는데 도움이 되었다.

면담 자료를 녹취한 후에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각자마다 다르게 쓰는 어휘, 주제, 삶의 내용을 개방적 코딩을 실행하였다. 그 후 코딩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맥락화하는 작업을 통해 초기 코딩과정에서 생긴 자료들을 다시 분석적으로 범주화하고 중간 범주화를 통해 다시 핵심 범주화했다.

본 연구자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모임²⁾에서 질적 연구물들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 지속적으로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모임을 통해서 현상에 대한 이해와 연구자의 경험만이 아닌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하였는지를 알아보고, 외부자인 연구자가 내부자인 연구 참여자의 세계를 얼마나 근접하게 그려나가고 있는지를 연구 참여자가 평가하게 해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연구자의 검증을 통해 자료의 해석 과정에서 불명확한 정보들로 연구의 엄격성과 진실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년 미혼여성이 체험하는 삶의 현상을 결혼관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Max van Manen의 해석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체험의 본질에 집중, 실존적 조사, 해석학적 현상학의 글쓰기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체험의 본질을 알고자 연구자는 van Manen의 연구방법에 따라 중년 미혼여성들의 생활 세계를 네 가지 실존체 즉 공간성, 신체성, 시간성, 관계성으로 구분하여 연구 참여자 삶의 체험구조를 조망하였다. 4가지 실존체의 대한 범주는 체험한 신체성은 긴장과 눈치 등으로, 체험한 시간성은 갈등, 타인, 다른 시간, 기다림 등으로, 체험한 공간성은 소통의 부재, 엄마와의 갈등, 현실과 이상의 괴리 등으로 체험한 관계성은 일, 쉼, 여행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2. 중년 미혼여성의 본질적 주제

본 연구는 중년 미혼여성의 본질적인 주제 분석을 위해 글읽기 방법 중 하나인 세밀한 글읽기³⁾를 하였다. 이는 문장이나 문장 다발이 기술하고 있는 현상이나 경험에 대해 무엇을 알려 주는가를 묻는다(van Manen, 1994). 반복된 글 읽기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갖고 있는 내면적인 갈등을 다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것은 연구자에게 글읽기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삶의 정향이다. 심층적으로 갖고 있는 삶의 정향이 무엇인가? 성실과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겉모습으로만 드러나는 것이다. 연구 분석한 결과 이들은 두려움 속에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⁴⁾

연구자는 공간성, 신체성, 시간성, 관계성의 범주화로 현상들을 종합해 본 결과 결혼관에 대한 중심현상을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의 괴리’로 보았다. 중년 미혼여성은 삶의 욕구와 욕망에 대한 이상향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정작 그러하지 못한 것이다. 심층 면담을 통해 드러난 자신이 그렸던 과거의 이상향과 미래의 이상향은 지금 현재를 그대로 인식하는 데 있어 장애물처럼 생각되어졌다. 이는 연구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

다. 자신의 욕구를 은폐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지금 현재를 견뎌내고, 이상이라는 환상 속에 숨기고서 타인의 시선을 여전히 의식하고 있다. 결국 자신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 삶의 의미부여

한국사회에서 30대 중반을 넘어선 미혼여성은 삶의 새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삶의 경험으로부터 다시 시작될 인생의 과제들을 점검하고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인생의 활력소가 되는 것이 연애관계가 아닌 자아성취에 초점이 맞춰진 일이 우선이었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는데 의미부여를 하였다. 또한 결혼적령기가 훌쩍 지나감에도 결혼이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주변의 시선은 긴장감을 주었을 테지만 정작 자신은 일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관계에서 의미부여를 하지 못하였다. 일이나 공부에 몰려있음으로 인해 가족관계나 대인관계 등에서는 자신의 삶의 의미부여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지내는 면이 크다.

일은 내 인생의 활력소이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수단이에요. 자아성취의 도구로 느낀 시기는 지나간 것 같고요. 지금은 경제적인 부분의 비중이 더 큰 것 같아요.(2009. 9. 20. 연구 참여자 A)

제가 벌써 그런 나이란 것을 인식하게 되니까요. ‘결혼에 대해 너무 무신경한 상태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2009. 8. 9. 연구 참여자 B)

공부를 하면서 나이 많은 부분도 간과가 안 되지만 체력도 많이 기르고 어릴 때는 생각 못했는데 요즘은 밤새고 나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그날 하루 종일 일을 못하는 거예요.(2009. 10. 20. 연구 참여자 C)

중년 미혼여성에게 있어 일은 이전에는 삶의 활력소나 자아성취의 역할을 해주었지만 현재는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도구로 전환되고 있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노후를 혼자서 준비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이다. 신체적으로 느끼는 부담감과 함께 경제적인 부담을 스스로 부양할 수밖에 없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인관계와 가족관에 대해서 소홀해져있는 자신을 발견하지만 그 관계를 다시 소통하거나 회복시키는데 막연한 부담이 있는 것이다.

나. 선택의 갈림길

중년 미혼여성은 20대나 30대 초반까지도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외면적으로는 결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이상적인 결혼을 꿈꾸고 있다. 예전에는 미혼으로 중년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선택과 결정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어릴 때는 개인의 성취욕구와 맞물려 결혼이 진로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졌다. 나이가 들수록 삶을 바라보는 이해는 깊어졌으나 실질적으로 거머쥐어야 할 삶의 실체는 멀어지고 현실과는 점점 거리를 두고 추구하는 이상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현실은 이상의 괴리감을 경험하고 있지만 수용적이지 못하다.

어쨌든 최근에 만난 사람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인연이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더 어렸을 때 만나는 것 보다는 깊이나, 사람과 함께 하는 의미가 조금 더 무게감으로 다가왔다는 생각도 들고요.(2009. 8. 9. 연구 참여자 B)

아쉽죠. 오래 전에 결혼 생각이 없다가 그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기에 이왕이면 만나 보려고 하죠.(2009. 10. 20. 연구 참여자 C)

예전에는 내 결혼관이 예뻐다고 했었는데 그 예뻐던 것들이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림이 선명하지가 않아요.(2009. 9. 10. 연구 참여자 D)

삶의 경험에서 보이는 부담감이 사람을 만날 기회보다는 막연한 시간의 연장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전의 자신에게 다가왔던 인연들에 대한 그리움은 외로움과 고독의 형태가 되어간다. 지금에야 되짚어보는 지나간 인연들은 앞으로의 만남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기보다는 아픈 상처가 되어 무의식 속에서 이들을 붙잡고 있다. 이들의 무의식 속의 갈등을 끄집어내어 직면하여야 할지 새로운 관계의 소통에 대한 준비를 할지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다. 삶의 갈증

현대사회는 여성상위시대라고 한다. 이에 걸맞게 결혼과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어머

니 세대보다 더 슈퍼우먼이 되어야 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담감은 이들의 결혼관 변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직업과 일, 자녀양육, 살림 등을 잘 해내야 하는 부담감을 미리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직업적인 성취는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수단이 된다고 한다.

보통 결혼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랑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랑은 조건도 아니고 수단도 아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은 타인을 거울삼아 자신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다. 사람은 자기중심성에 빠지면 타인의 삶을 살펴볼 여력이 부족해진다. 앞서 말했듯이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아야 사물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타인에 대해 수용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삶을 이제는 시작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전과는 다르게 진지하게 자신의 무의식의 호소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나한테 있어서 결혼관은 살면서 동반자를 만나는 일이고 기본적인 것을 맞춰주는 나와 비슷한 외부적인 현실적인 조건이 같은 사람이면서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인연이 생긴다면 아기를 가질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2009. 10. 20. 연구 참여자 C)

타인을 통해 내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내 동반자는 이해력도 있고 참을성도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할 것 같아요.”라고 한다. 자신은 “이런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바람을 드러낸다. 이러한 점은 자신만의 가치 기준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한 상대가 나에게 맞춰준 자신은 타인을 수용함에 있어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만 결혼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혼생활이 힘들어 질것에 대한 염려가 앞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함으로 인해 생긴 혼란과 갈등은 자기모순으로 귀결되고 만다.

라. 멈추지 않는 간섭

연구 참여자가 원 가족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일상의 힘든 얘기들을 서로 꺼내놓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서는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참고 인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히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가족 내에서 본인의 힘든 점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다. 힘든 상황이 생겨도 스스로 해결한다는 압박감이 크며

이러한 내적 어려움은 이들을 가족 내에서도 자기소외의 현상으로 드러난다.

중년 미혼여성에게 어머니와의 반복적이고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숙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원 가족과 분리된 형제들과 달리 같이 거주를 하거나 정서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소한 일들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식에 대해 부모의 책임감이 지속됨에 따라 억압된 감정의 표출은 사소한 사건들로 촉발되어 부정적으로 표출된다. 객관적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으므로 심리적인 독립은 요원한 상황이다. 부모의 역할과 자신의 주체성을 살려야 함에도 여전히 귀속되어 있는 느낌이다.

엄마의 중심성, 합리성 그럼에도 엄마와 나의 갈등은 그런 거죠. 아들딸이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동네사람들에게 창피하다는 생각을 하세요. 제가 결혼을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게 아닌가에 이런 입장에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2009. 8. 28. 연구 참여자 B)

‘내 결혼인데 왜 부모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다른 일상의 일들로도 미혼의 딸에게 표시를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엄마와의 갈등의 주원인이 미혼의 상황 때문에 겪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혼을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게 아닌가’하여 동네 사람들이 창피하게 생각을 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면서 스스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19살 때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부모님한테는 손 안 벌리고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까지 했는데 그런 경제적 독립은 이미 갖고 있기에 심리적 독립도 이미 했다고 하는데 심리적 독립이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커서도 엄마와 소통이 의존과는 다른 공감기가 있다면 그게 될 텐데 요.(2009. 10. 20. 연구 참여자 C)

부모와의 반복되는 언쟁에서 “나의 실수인 것 같아요.”로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싸움을 회피하거나 수년간 반복된 갈등의 해결책을 찾지 못함으로써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미혼의 상황에서는 부모와 정서적으로 분리가 쉽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독신의 상태에서는 새로운 가족형성에의 연결고리를 풀어내기 쉽지 않다. 문득 삶을 돌이켜 보면 자신의 삶이 어느 순간부터 살아지는 대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혼숙된 삶의 습관⁵⁾들이 이들을 자유롭지 않게 한다.

마. 떨림의 상실

누구나 지금까지 경험해 온 삶의 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내면의 세계 안에서 사랑할 만하게 바꾸어야만 세계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 인생의 동반자가 될 사람의 중요한 덕목으로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신뢰의 기준으로 어린 시절 가졌던 조건들이 밀려날 뿐이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내세우게 된다. 자신의 이상향에 맞는 동반자를 항상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무료함과 외로움은 결혼의 필요성을 일으킨다. 아직 경험하지 삶에 대한 동경이 더욱 결혼을 절실하게 생각하게 한다. 서서히 발견하는 내면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앞으로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동반자와의 만남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내면적으로는 이상향을 그리고 있고 외면적인 상황은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은 만나는 남자들에 대해서 동등한 입장과 정신적 유대감을 요구한다. 결혼의 선택과 결정은 연구 참여자에게 경제적인 여건과 자녀양육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갈등이 된다고 한다. 새로운 가족형성을 위해 남편의 존재만으로는 의미부여가 어려워 두 사람이 함께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함께 할 때 진정한 가족이 형성된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삶의 경험 안에서 직업에서의 성실과 자아정체성이 아직도 모성 체험에 대한 절대적인 욕구에 매여 있는데서 기인한다. 그것이 이들의 삶에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잣대처럼 여기게 되며 결혼생활을 한다면 이들의 모습은 이미 현모양처의 상을 가지게 된다. 인생의 모범 답안이 ‘현모양처’로 혼숙되어있는 것이다. 새로운 가치관들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실제 내면에서는 현모양처로 살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회 양식에 갇힌 모습이다.

연구 참여자에게 새로운 가족 형성은 남편의 존재만으로는 제대로 가족형성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두 사람이 함께 자녀의 탄생과 양육을 하는 가족형성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인생에서 결혼의 선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각하고 있는 자녀 양육의 부담감은 확대되어 있다.

살림도 잘할 것이라는 인식, 어른들한테도 잘하겠지, 뭐든지 기대하는 게 높은 것 같아요. 20대에는 어리니까 봐주는데 우리 나이는 육떡겠다는 사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2009. 9. 20. 연구 참여자 A)

그때부터는 가족구성원은 남편이랑 나랑 결혼했을 때는 조금만 참고 노력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들어줄 순 있겠죠. 아이가 태어나면 사랑과 전쟁에서처럼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오니까 겁이 나요. 자신감도 없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2009. 9. 10. 연구 참여자 D)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의 존재감은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2순위로 밀려나 있는 것이다. 공동양육에 대한 기여, 경제적인 기여가 있는 상황에서의 존재감을 부여받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혼여성들이 모성체험⁶⁾에 대한 절대적인 욕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성체험의 욕구가 이들의 삶에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잣대로 여기게 된다. 결혼생활을 한다면 이들의 모습은 이미 현모양처와 닮아있으며,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것은 채워야 할 욕망의 거울로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내면의 고정관념은 감정적인 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바. 자녀양육에 대한 염려

일반적인 결혼관의 변화로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헌신보다는 개인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은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듯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과도 연결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살아온 본능적인 모성애적인 접근에서 비롯되어지며 결혼과는 무관한 긍정적인 자녀양육의 환상을 갖고 있다.

내 욕심 때문에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45세 이상이 되면 출산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자식을 낳고 제대로 지원을 못해주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2009. 11. 20. 연구 참여자 A)

자식한테도 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죠.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야죠. 그것이 바람직한 부모상이 아닐까요?(2009. 8. 29.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은 나이가 어릴 때는 자녀 양육에 대해 굳이 생각해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노산의 시기가 됨으로써 출산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혹여나 마흔이 넘어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했을 때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는 등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결혼을 할 경우 이들의 삶의 중요한 대상이 되는 것은 인생 동반자가 되어줄 남편보다는 자식이다. 생물학적으로 노산의 시기가 됨에 따라 모성체험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는 채워지지 않은 삶의 중대한 가치로 자리매김되어 간다. 이것은 비교 연구 참여자가 자식양육을 당연시하는 현상⁷⁾으로 인식하는 맥락으로 보이기도 한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은 결혼에 대한 모순된 현상으로 드러난다.

V. 결 론

연구자는 중년 미혼여성의 삶의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인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사회적 편견에 비해 결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들여보며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은 긍정과 부정의 양 극단의 문제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들 개개인의 면담을 통해 드러난 삶의 체험의 모양은 연구 참여자마다 다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실제 체험에 있어서 삶에 대한 동일한 역사성을 가지지 않지만 내면의 모습에서는 공통적인 차원을 담아내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중년 미혼여성의 삶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이해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본 연구의 의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중년 미혼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독신의 삶이 된다면 더 절실한 문제로 다가오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참 인식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의 지향점은 달라질 것이다.

결혼이라는 문제에 대해 이제 그들에게 자식이 포함되지 않고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깊은 고민을 갖게 하는 시점에 있었다. 설령 아이를 양육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책임감에 대한 무게가 더 크게 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맞닥뜨리는 것이다.

결혼과 가족을 배제하고 일 중심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이 무료해짐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의 삶은 과거회귀와 미래지향 사이에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는 결혼과 가족을 형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과 여행, 공부 등을 통해 새로운 삶을 구성해 가고 있으며 이들

의 삶의 형태는 새로운 의미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중년 미혼여성에게는 다음과 같은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면담이 끝난 후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로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알아가는 체험을 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참모습을 얻어가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 묻혀서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을 갖기도 하였다. 본 연구자는 그들이 아쉬움을 갖는 현상을 본 연구 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적은 없지만 하고 싶은 마음과 달리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갈등을 반복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직업에 대한 의미부여를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직업경험에서는 안정감과 함께 자아성취보다는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의 직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지금은 무엇을 시작하기에, 그렇다고 멈춰서 있기에 불안정한 자신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자신에게 결혼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원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반자를 만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로 만남의 시도 자체가 어렵고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드러냈다. 노산의 위험성과 부모와 자녀의 많은 나이차가 발생하는데서 비롯되는 양육의 질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나 그 이면에 있는 욕망은 가족형성에 대한 욕구에 대한 소속감, 안정감 등이었다. 자신의 모성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고 싶음을 탐색해 볼 수 있었다.

연구자는 중년 미혼여성 중에서도 38~42세 사이의 연구 참여자만 대상으로 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반응성을 최소화하여 실제적 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는 근본적 문제로 인해 그들의 진술이 실제적 사실과 부합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 동일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연구자의 배경은 연구 참여자들과 쉽게 라포를 형성케 하는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자료의 분석과 해석 그리고 결론제시 과정에 연구자의 주관이 녹아들어갈 수도 있다는 한계를 가질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중년에 막 들어선 미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중년 미혼여성

전체를 이해하기에는 한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되어진다면 40대에서 50대중반까지의 실제적인 삶의 체험들을 들어봄으로써 이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목적이 일반화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현상에 대한 깊이를 추구한다 해도 중년 미혼 남성들이 지향하는 삶의 형태를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중년 미혼남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들과 함께 인생을 바라보는 동반자의 역할을 상호작용인 관계의 역동에 대하여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중년 미혼여성의 결혼관을 중심으로 주제로 하였기에 삶과 관련되어지는 다양한 변수들이 많다. 그 변수들 중에서도 ‘가족관’의 관계에서 미혼여성과의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폭 넓게 개별현상들을 이해하는 연구를 통해 결혼관과 가족관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지에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년 미혼 여성의 삶에 있어서 결혼관이 미치는 영향은 발달적인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들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경험이었다.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회에 대한 편견 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년 미혼 여성이 결혼적령기를 넘어선 자신의 현실적인 부분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결혼을 체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구결과, 사실 이들의 내면에는 자녀출산 및 질 높은 양육을 하고자 하는 모성체험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그런데 동반자를 찾고 만나는 데 있어서 수동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인 삶에서 원하는 기대는 높으나 대인관계도 소극적이고 자기 인식은 낮다보니 자기소외적인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 더구나 연구 참여자는 그 중요한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있었다. 다만 이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비로소 자신의 살아온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인식하기 시작했다. 결혼관을 어떻게 가지느냐, 자기 욕구와 현실의 차이를 수용하고 설계해 가느냐에 따라 중년 미혼 여성이 삶의 본질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개인의 삶의 지향점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후주

- 1) 심층면담을 할 때에는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시기, 즉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심층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면담을 통해서 자료의 포화를 가지는 면과 추가질문과 전화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 2) 질적 스터디를 통해 질적 연구의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양적연구의 경험자와 함께 개방코딩을 해봄으로써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중심현상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들의 의견과 질문을 받고 서로 나눈 뒤 중심현상을 다시 여러 번 도출해 내는 과정을 가졌다. 연구의 엄격성과 진실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3) 세밀한 글읽기 방법(the detailed or line by line approach)으로 각 문장 혹은 문장다발을 하나하나 살펴본 다음 이 문장이나 문장다발이, 기술되고 있는 형상이나 경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를 질문하는 것이다(양진향, 2001).
- 4) 교내 질적 연구 모임에서의 개방코딩, 중간범주화, 핵심범주화를 통해 드러난 중심현상은 자아도취나 도덕적 과부하, 공상적 자기강화 등으로 의견이 나왔으며, 갈팡질팡하는 경향 등을 ‘이면수의 비애’, 결혼을 부정하고 싶지만 지금까지의 자신을 부정할 수 없음에 대한 두려움, 수면위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두려움 등으로 표현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중심현상에 대하여 이상이라는 ‘화려한 옷 속에 숨은 이상’을 통해 자신을 은폐함, 스스로 돌봄이 타인에 대한 의존성으로도 보았으며, 배려 받고 싶은 나, 소통의 부재, 타인의 시선에 간힘 등으로 보았다. 이 중심현상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로 고민하는 중년 미혼여성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 보고 있다.
- 5) “여자들이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아이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아이들을 자기들 삶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여기는 한, 아이들은 경제적 자율 및 직업경력에 의식적으로 반대하게 하는 유혹인 동시에 직업경쟁에서 내심 바라고 있던 ‘장애물’로 남게 된다.”(Beck, Ulrich, 홍성태 옮김, 2006).
- 6)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첫 어머니됨 체험이 여성을 진짜 여성으로, 진정한 여성으로 만들어주는 체험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어머니들은 첫 어머니됨을 체험하고 난 후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나 여성성이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손승아, 2000).
- 7) 이 세상의 모든 여성의 모성은 아이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양육의 경험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똑같다. (<꽃들에게 희망을> 작가 트리나 폴러스가 말했다. “모성애에 대한 해석은 확대된 아이와 가족의 개념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모성애를 내가 낳거나 직접 키우는 것으로 제한시킨다면 그 의미를 너무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일 뿐더러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전혜성, 여자야망사전, 2007).

참고 문헌

- KOSIS국가통계포털(2014). 모바일로 보는 통계로 보는 자화상.
- 강수영·권기돈·배은경(공역)(1999).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사랑, 결혼, 가족, 아이들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근원적 성찰. 서울: 새물결.
- 고기숙·이혁구(2004). 중년기 직장 남성의 사회적 위치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환경 특성 및 자원봉사경험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3, 9-41.
- 권미형·김분한·김윤정(2009). 중년 미혼여성의 삶의 만족감에 관한 주관성 연구. 주관성 연구, 18, 101-123.
- 김소라(2007). 고학력 미혼여성의 독신문화에 관한 연구: 새로운 생애단계의 사회적 구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박정윤(2002). 독신가족의 가족복지 욕구분석을 위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0), 7-31.
- 노영주·한경혜(2000). 50대 중년 여성의 모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1-22.
- 신경림·안규남(공역)(1994).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동녘(원저 출판연도 1990).
- 신상희(역)(1997). 하이데거. 서울: 한길사.
- 신은식(2002). 독신 미혼여성의 노후관련인식과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효영(200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경미(2002). '비혼' 여성에 관한 연구: 30대 중반 이후 40대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비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은주(2005). 고학력 미혼 취업 여성의 일과 삶에 대한 생애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진향(2001). 한국여성의 음식양생(飮食養生)에 관한 체험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미라(2006). 고등학생의 결혼관 및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심리적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남인(1996). 현상학과 해석학(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이찬웅(역)(2000). 어느 현상학자의 일기. 서울: 이후.

장지원(2007). 30대 미혼남성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결혼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장진경(2005). 미혼여성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3(11), 165-183.

전혜성 저(2007). 여자야망사전. 서울: 중앙북스.

조규연(1980). 우리나라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진영은(역)(2008). 교육 상황에서 질적 연구 수행하기. 서울: 학지사.

통계청(2014). 중년미혼여성의 변화추이.

표재명(역)(1970). 나와 너. 서울: 문예출판사.

한전숙(1998). 현상학. 서울: 민음사.

홍성태(역)(2014).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Abstract>

Phenomenological study on middle-aged single women's life - Focused on an outlook on marriage -

Chae, Jae He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hrough the phenomenological hermeneutical research method by Max van Manen and is aiming at researching ‘how is the essence of life?’, which is centered on outlook on marriage of single women. I tried to find out the answer on the assignment through existential survey and hermeneutical phenomenology's writing. The depth interview about this study was based on the middle-aged single women of the age of from 32 to 42.

Following are this study's results: the experienced physical system appears the alienation between the tension and the fatigue, the experienced temporal system appears the expectation and the contradiction, the experienced relational system appears to be difficult in the communication, the experienced spacial system appears to be enduring the life.

Also, essential theme analysis was composed of the followings: giving the life meaning, turning point in the choice, the thirst in the life, the unceasing interference, the loss of trembling, the anxiety about parenting and so on.

The main phenomenon through this analyzed process was “denied desire locked by themselves by others' view” and this was eventually interpreted as a phenomenon of self-alienation.

This study was the chance to aware the self-understanding about the middle-aged single women themselves and their prejudice about the society newly and to look back on them. Also, we can have the authenticity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their role socioeconomically by understanding the essence about middle-aged women's life, based on the understanding about characteristic of their life.

This will suggest the positive methodology for the high-quality life.

Key words : middle-aged single women's, hermeneutical phenomenology, outlook on marriage, experience, Self-alienation

놀이·음악 통합치료가 발달지체아동의 상호주의하기와 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문은현·선우현*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발달지체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놀이치료와 음악치료를 통합한 놀이·음악치료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발달지체아동의 사회성에 기초가 되는 상호주의하기와 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발달의 각 영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는 발달지체아동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사회성의 기초인 상호주의하기와 요구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가치는 발달지체아동에게 적절한 개입을 통한 발달의 촉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에서의 적응상의 문제까지 미리 준비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핵심어 : 놀이·음악통합치료, 발달지체유아, 상호주의하기, 요구행동

* 교신저자: 선우현(johann02@naver.com)

■ 게재 신청일 : 2014년 12월 9일 ■ 최종 수정일 : 2015년 1월 20일 ■ 게재 확정일 : 2015년 1월 23일

I. 서론

발달지체(developmental delay)란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서 특수아 조기교육 대상자의 적격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개념으로, 발달에 있어서의 일탈적 특징이나 지연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달지체를 지닌 아동들은 특정 장애나 판별되어진 문제를 지니기도 하고 지니지 않기도 한다(이소현, 2003).

발달지체아동들은 인지, 운동 기능, 언어, 사회·정서 또는 자조기술의 각 영역에서 지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gel & Schafer, 1983). 이는 사회성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아동들이 타인에게 접근하고 질적으로 교류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Egel & Schafer, 1983; Guranlick, 2001). 특히 발달지체아동들은 모방과 상호주의가 필요한 놀이에 별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모방과 상호주의하기는 자기를 인식하고 타인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이므로 이러한 기술이 부족할 경우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몸짓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상호작용의 참여와 유지에 방해가 된다(이소현, 2002). 따라서 발달지체아동은 사회적 기초 행동인 응시, 지적 따라가기, 응시전환하기, 제한 받아드리기, 요구하기 등을 포함한 상호주의하기와 요구행동의 발달이 지체됨으로 인해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발달지체아동의 상호주의하기 행동의 촉진(송은정, 2000)과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발달놀이치료를 통한 상호주의하기와 요구행동의 변화(김영미, 2003), 그리고 자폐성 장애아동의 환경 촉진을 통한 상호주의하기 중재(오경민, 2013)등 상호주의하기 연구가 보고되었다. 또한 놀이치료와 음악치료를 통해 발달지체아동의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선행연구(김정연, 2003; 박은주, 이아련, 2008; 이화량, 2009; 장혜원, 2002; 정은영, 2001; 조은정, 2002)들을 살펴보면, 발달지체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발달이 지체되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놀이치료와 음악치료를 따로 처치한 결과들로 발달지체아동에게 놀이치료와 음악치료가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치료보다 통합치료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인해 통합치료에서의 촉진적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면서 통합치료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성묘진, 2004; 이주실, 2010; 이혜진, 2008).

통합치료는 다양한 치료 간의 긴밀한 협조로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들의 유형별, 연령별 전인적인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최적의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예방적 차원도 함께 하여 문제행동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선우현, 2009).

놀이치료와 음악치료를 통합한 치료를 아동에게 증재한 것을 살펴보면 김효선과 선우현(2014)은 가족놀이치료에 음악치료를 통합한 가족놀이음악치료 프로그램을 부모-자녀에게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가족들은 사회적 반응과 감정 표현의 변화, 자기표현과 가족활동 참여도에서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간 친밀도와 가족 상호작용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서종미(2013)는 집단놀이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의 부적응 행동, 정서조절 및 사회적 관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며 놀이치료에 음악치료가 지닌 치료적인 이점이 통합될 때 치료의 효과가 더 강화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놀이치료와 음악치료의 통합 활동이 사회적인 발달의 촉진을 돕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놀이치료와 음악치료의 치료적인 요소들을 통합한 놀이·음악치료를 통하여 아동의 정서 조절, 의사소통 기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극대화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발달지체아동을 위한 놀이치료와 음악치료의 통합치료 접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치료의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는 시점에서 놀이·음악 통합치료가 발달지체아동에게 치료적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발달지체아동의 발달에 얼마나 촉진적 역할과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발달지체아동은 연구자의 모집 공고를 통해 서울 지역에서 모집되었고, 소아정신과 의사, 임상심리 및 발달심리전문가에 의하여 발달지체로 진단 받아 언어와 인지발달이 15개월 이상인 아동을 선정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사전에 선별검사로 母들이 사전에 실시한 사회정서행동 발달 검사지

에서 체크한 평정 단계의 총 점수가 85이하인 아동을 선별하였다. (아동의 연령에 맞게 2단계 전조작기 까지 체크하도록 하였고, 모든 문항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남을 체크할 경우 144이다.)

<표 1> 선별아동정보

아동구분	성별	생년월일
아동 A	남	2009년 9월 7일
아동 B	남	2009년 4월 18일
아동 C	여	2009년 5월 11일

2. 연구도구

가. 선별도구

아동의 사회정서행동 수준을 확인하여 발달지체아동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 The southern California Original Scales of Development를 한국의 장애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국립특수교육원(KISE)에서 개발한 ‘KISE 발달척도(1994)’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별검사로 사회자립, 사회정서, 언어발달, 인지능력,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발달로 구분되어 있는 6개의 발달영역 중에서 사회정서행동 발달영역을 검사하였다. 그리하여 프로그램 전에 아동의 사회정서행동영역의 지체된 수준을 맞춘 뒤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상호주의하기와 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신뢰있게 검증하고자 하였다.

<표 2> 사회정서행동발달척도

검사요인	발달 경향 및 영역	검사 항목 수	총
사회정서행동발달	자아의식	32	60
	대인관계	28	

나. 평가도구

아동의 상호주의하기와 요구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 (Early Social-Communication Scales : ESCS, Mundy et al., 2003)를 사용하였다. ESCS는 15-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화된 관찰 방법으로 8-30개월 일반아동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기술에서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발달 순서에 따라 5단계(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3.5단계, 4단계 중 5개)로 나뉘어져 있다.

각 영역은 아동의 역할에 따라 각 영역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가 혹은 시도를 하는가에 따라 반응자와 시도자로 나뉘어있다. 상호주의하기 반응 영역은 아동이 연구자인 타인과 연구자가 제시하는 대상에 대한 응시, 지적하기, 시선 따라가기, 질문에 대한 반응을 통해 각 발달별로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채점되며, 상호주의하기 시도 영역에서의 연구자인 타인과 연구자가 제시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응시 전환, 주의를 끌기 위한 시도로 1단계, 2단계, 3단계, 3.5단계, 4단계로 채점된다. 각 영역의 단계별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도록 하겠다.

상호주의하기와 요구행동 평가 장소는 아동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놀이감들이 있는 명지통합치료연구센터 놀이치료실에서 연구자와 아동이 일 대 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평가 시간은 각각 약 15분 정도의 시간으로 비디오를 녹화하여 이 후 관찰자 1인, 음악치료전문가 1인, 연구자 1인 총 3명이 함께 관찰하며 평가하였다. 관찰자는 아동심리치료관련 전공 석사 졸업생으로 발달지체아동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관련 수업을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연구자가 상호주의하기 평가에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평가도구로는 풍선, 비눗방울, 태엽 감는 장난감, 아기 인형, 자동차 등이다.

상호주의하기 평가의 반응영역과 시도영역은 각각 연구자가 아동에게 제시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는 것으로 1분마다 0-4단계 중 몇 단계의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15분의 평균이 몇 단계인지를 확인하였다.

3. 놀이·음악 통합치료 프로그램 구성

본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전 아동의 특징과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유의할 점들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첫째로 발달지체아동의 발달단계와 발달의 가소성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알맞은 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발달지체아동에게 적용할 다양한 중재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

성화시킬 수 있으며 일반화 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중요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전에 발달지체아동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사회적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상호 주의하기와 요구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표 3> 통합치료의 구성 과정 및 기대효과

치료 진행	회기	놀이치료목표	음악치료목표	놀이·음악치료 통합과정	기대효과
초기	1-2 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와 신뢰감을 형성 • 수용경험을 통한 안정감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소리에 관심과 즐거움 • 멜로디(소리)를 통한 주의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숙한 음악의 요소를 활용하여 연구자와의 신뢰 형성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에 대한 흥미 유발 • 응시 반복을 통한 눈맞춤 증가
중기	3-10 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입활동을 통한 놀이에 대한 즐거움과 정서 공유 • 구조 활동을 통한 제한과 외부자극에 대한 받아드림 • 양육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 • 도전활동을 통한 성취감 및 자아감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탐색 및 연주경험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유도 • 음악 감상을 통한 이완 • 노래 부르기를 통한 감정 발산 • 신체표현을 통한 표현욕구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음악치료 노래 따라 부르기를 통한 언어 이해와 표현력 증진 • 연구자와의 접촉을 통한 안정감 및 타인 적응력 강화 • 놀이음악을 통한 의사소통 증가 • 환경과의 접촉에 대한 거부감 감소 • 감정표현 및 발산을 통한 만족감 및 카타르시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시도증가 • 놀이에 대한 응시 및 연구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 증가 • 요구에 대한 이해력 증진 • 적절한 반응과 시도 가능
후기	11-12 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성촉진 • 종결을 통한 만족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로 의사소통을 하여 정서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발산 및 자발성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작용 확장 • 요구행동의 증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2회기의 놀이·음악 통합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기본 틀은 발달지체아동에게 적절한 개입, 구조, 양육, 도전의 치료적 요소가 있는 치료놀이를 기반으로 하여 악기탐색 및 연주, 노래 부르기, 음악 감상, 신체표현의 음악 치료 요소를 포함하였다. 음악치료의 요소 중 즉흥연주는 발달지체아동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기본 틀인 치료놀이의 구성에도 적용하기 어려워 제외하였다.

<표 4> 놀이·음악 통합치료 프로그램 구성

회기	프로그램	통합치료의 구성	
1	헬로우송 - 어디있나? - 로션놀이 - 인형인사 - 티슈펼치 - 거미놀이 - 굿바이송	놀이치료요소	개입, 도전, 양육
		음악치료요소	악기탐색및연주, 노래부르기, 음악감상, 신체표현
2	헬로우송 - 어디있나? - 보자기까꿍 - 인형인사 - 풍선놀이 - 시소놀이 - 로션미끌 - 로션손도장 - 굿바이송	놀이치료요소	개입, 구조, 양육
		음악치료요소	악기탐색및연주, 노래부르기, 음악감상, 신체표현
3	헬로우송 - 보자기까꿍 - 비눗방울 - 공굴리기 - 두팔농구 - 로션놀이 - 소리얼굴 - 굿바이송	놀이치료요소	개입, 도전, 양육
		음악치료요소	악기탐색및연주, 노래부르기, 음악감상, 신체표현
4	헬로우송 - 사과내얼굴 - 숨기찾기 - 후프기차 - 시소놀이 - 로션놀이 - 손가락세기 - 굿바이송	놀이치료요소	개입, 구조, 도전, 양육
		음악치료요소	악기탐색및연주, 노래부르기, 음악감상, 신체표현
5	헬로우송 - 머리어깨무릎 - 까꿍놀이 - 밀가루놀이 - 풍선놀이 - 쉼쉼쉼 - 로션놀이 - 엮어주기 - 굿바이송	놀이치료요소	개입, 구조, 도전, 양육
		음악치료요소	악기탐색및연주, 노래부르기, 음악감상, 신체표현
6	헬로우송 - 인형인사 - 뽀뽀이터트리기 - 방석점프 - 손발그리기 - 손가락발가락세기 - 로션놀이 - 엮어주기 - 굿바이송	놀이치료요소	개입, 도전, 양육
		음악치료요소	악기탐색및연주, 노래부르기, 음악감상
7	헬로우송 - 까꿍놀이 - 기차놀이 - 비행기놀이 - 공놀이 - 볼풀공숨기기찾기 - 파워더손발찍기 - 엮어주기 - 굿바이송	놀이치료요소	개입, 구조, 도전, 양육
		음악치료요소	악기탐색및연주, 노래부르기, 음악감상, 신체표현
8	헬로우송 - 곰세마리 - 비눗방울놀이 - 수수깡부러트리기 - 패트병넘어뜨리기 - 쉼쉼쉼 - 파워더손발찍기 - 엮어주기 - 굿바이송	놀이치료요소	개입, 도전, 양육
		음악치료요소	악기탐색및연주, 노래부르기, 음악감상, 신체표현
9	헬로우송 - 소리얼굴 - 거미가줄을타고 - 손과발밀기 - 풍선놀이 - 점토놀이 - 로션놀이 - 엮어주기 - 굿바이송	놀이치료요소	개입, 구조, 도전, 양육
		음악치료요소	악기탐색및연주, 노래부르기, 음악감상, 신체표현
10	헬로우송 - 까꿍놀이 - 쉼쉼쉼 - 시소놀이 - 뽀뽀이터트리기 - 공놀이 - 파워더손도장 - 엮어주기 - 굿바이송	놀이치료요소	개입, 구조, 도전, 양육
		음악치료요소	악기탐색및연주, 노래부르기, 음악감상, 신체표현
11	헬로우송 - 인형미끄럼 - 숨기기찾기 - 비눗방울 - 방석점프 - 비행기놀이 - 로션놀이 - 엮어주기 - 굿바이송	놀이치료요소	개입, 구조, 도전, 양육
		음악치료요소	악기탐색및연주, 노래부르기, 음악감상
12	헬로우송 - 까꿍놀이 - 로션미끌 - 풍선놀이 - 패트병넘어뜨리기 - 종결파티 - 굿바이송	놀이치료요소	개입, 도전, 양육
		음악치료요소	악기탐색및연주, 노래부르기, 음악감상, 신체표현

Ⅲ.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발달지체아동에게 놀이·음악통합치료를 실시하고, 놀이·음악통합치료가 발달지체아동의 상호주의하기와 요구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아동의 상호주의하기와 요구행동을 객관적 평가 척도를 사용하여 1분마다 확인하여 평균을 내어 처리하였다. 그리고 사전과 사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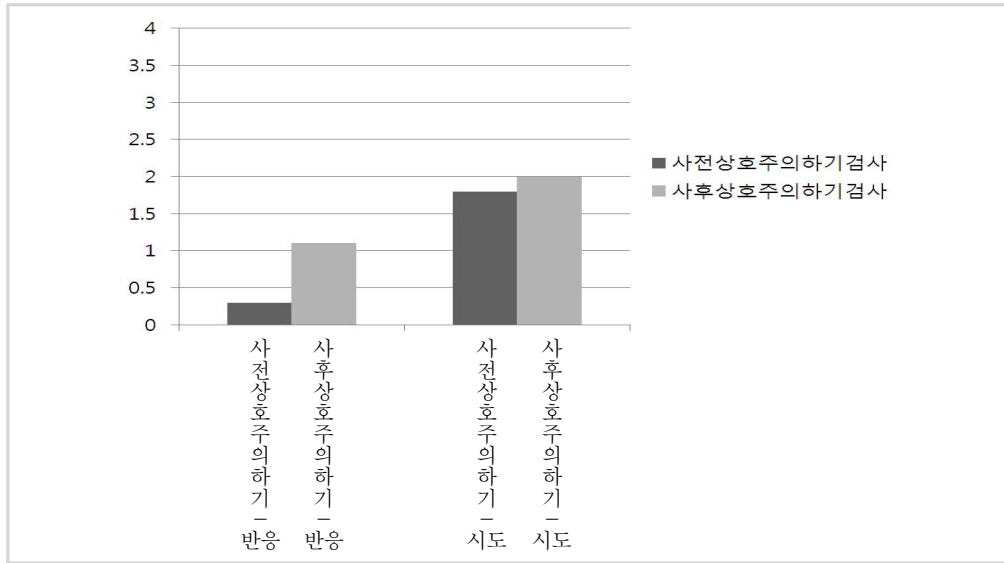
Ⅳ. 결 과

1. 아동 A의 변화

가. 상호주의하기

아동 A의 상호주의하기 반응은 프로그램 전 평가 시 1분간 평균 0.3에서 프로그램 이후에는 1.1로 증가하였는데 프로그램 전 평가 시 연구자가 제시하는 놀이감(자동차, 그림책, 풍선)에 제한적으로 응시하였다. 프로그램 후 평가 시에는 연구자의 놀이감(아기인형, 아빠인형)을 묻는 질문에 알맞게 가리키거나 아동의 신체부위를 묻는 질문에 정확히 찾는 반응을 보였고, 연구자가 지적 하는 것에도 따르며, 숨겨진 물건을 찾는 등 제한되었지만 높은 단계의 반응을 보였다.

상호주의하기 시도에서는 프로그램 전 평가 시에는 1분간 평균 1.8에서 프로그램 이후에는 2.0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프로그램 전 평가 시에는 아동이 치료실의 천장에 있는 팬에 매우 관심이 있어 하여 그것을 가리키고 연구자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는 행동들이 많이 있었으며, 놀이감을 보며 한 단어 표현도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후 평가 시에도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천장의 팬에는 관심을 여전히 가졌으나, 사전에 비눗방울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후에는 관심을 가졌으며 작은 피규어 놀이감에도 관심을 보이는 행동이 나타났다.



<그림 1> 아동 A의 상호주의하기의 변화

그래프에서 확인한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평균값은 15분의 평가 상황을 1분씩 나누어 아동 A의 상호주의하기 반응과 시도 행동의 단계를 각각 확인하였고, 이를 총 시간인 15로 나눈 뒤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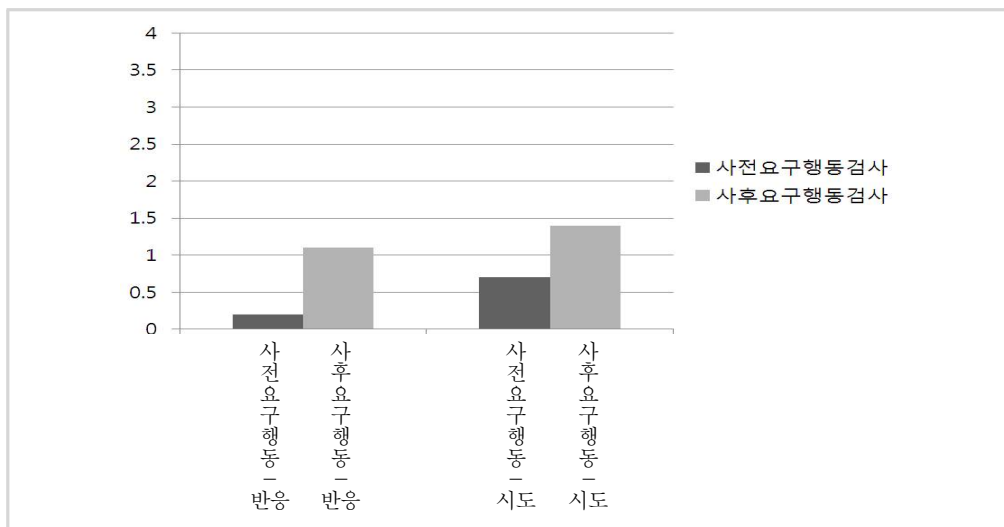
<표 5> 사전·사후 상호주의하기의 평균값 (아동 A)

상호주의하기 평가	사전/사후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평균값 (단계의 합/15분)
			횟수	7회	3회	1회	0회	0회
상호주의하기 반응	사전/사후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평균값 (단계의 합/15분)
			횟수	2회	2회	1회	3회	1회
상호주의하기 시도	사전/사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3.5단계	4단계	평균값 (단계의 합/15분)
			횟수	1회	0회	4회	4회	0회
상호주의하기 시도	사전/사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3.5단계	4단계	평균값 (단계의 합/15분)
			횟수	4회	2회	5회	1회	0회

나. 요구행동

아동 A의 요구행동의 반응은 프로그램 전 평가 시에는 1분간 평균 0.2단계에서 프로그램 이후에 1.1단계로 0.9단계 증가하였다. 아동은 연구자의 제한에 순응하여 반응하였고, 요구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이후에 반응이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 A의 요구행동의 시도는 프로그램 전 평가 시에는 1분간 평균 0.7단계에서 프로그램 이후에 1.4단계로 0.7단계 증가하였다. 아동 A는 사전보다 사후에 요구를 시도하는 긍정적인 방법과 부정적인 방법이 함께 다양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2> 아동 A의 요구행동의 변화

그래프에서 확인한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평균값은 15분의 평가 상황을 1분씩 나누어 아동 A의 요구행동 반응과 시도 행동의 단계를 각각 확인하였고, 이를 총 시간인 15로 나눈 뒤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표 6> 사전·사후 요구행동의 평균값 (아동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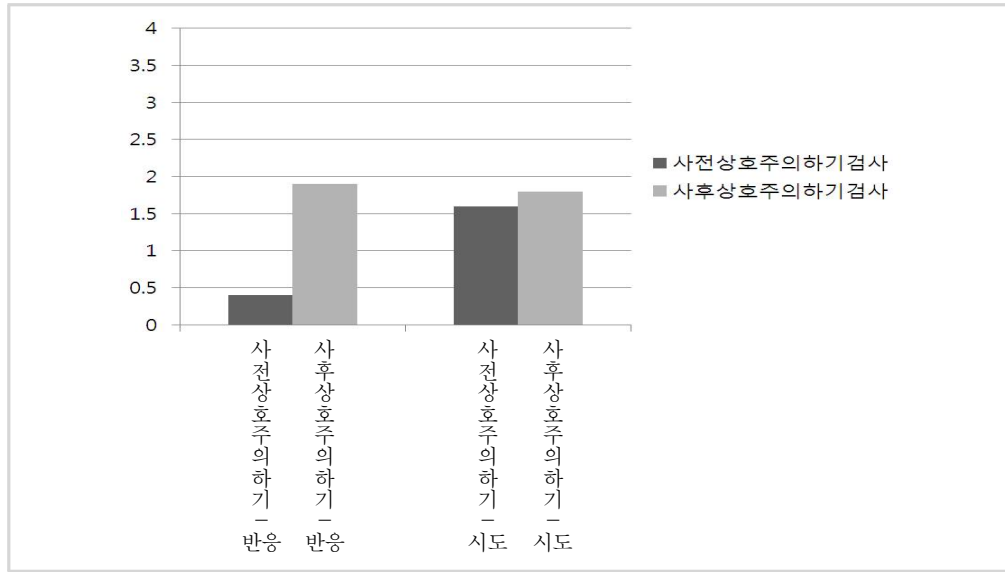
요구행 동반응	사전 평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3.5단계	4단계	평균값 (단계의 합/15분)
		횟수	0회	0회	1회	0회	0회	0.2단계 (3/15)
	사후 평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3.5단계	4단계	평균값 (단계의 합/15분)
		횟수	0회	1회	3회	0회	0회	0.7단계 (11/15)
요구행 동 시도	사전 평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3.5단계	4단계	평균값 (단계의 합/15분)
		횟수	0회	1회	3회	0회	0회	0.7단계 (11/15)
	사후 평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3.5단계	4단계	평균값 (단계의 합/15분)
		횟수	0회	0회	7	0회	0회	1.4단계 (21/15)

2. 아동 B의 변화

가. 상호주의하기

아동 B의 상호주의하기 반응은 프로그램 전 평가 시에는 1분간 평균 0.4에서 프로그램 이후에 1.9로 1.5단계 증가하였다. 아동은 프로그램 전 평가 시보다 연구자가 제시하는 모든 놀이감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고, 놀이감을 미리 준비할 때부터 응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질문에 비언어적 가리킴이나 언어적인 대답이 알맞게 나타나며 높은 단계의 반응이 나타났다.

아동 B의 상호주의하기 시도는 프로그램 전 평가 시 1분간 평균 1.6에서 프로그램 이후에 1.8로 약간 증가하였는데 관찰 분석을 확인하였을 때 사전 검사보다 사후검사에 더 구체적이고 높은 단계의 반응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은 프로그램 이후 검사 시 자신이 원하는 놀이감과 연구자가 제시하는 놀이감 모두에 응시 전환이 나타나며 놀이를 지속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나타냈으며, 언어적 표현을 통하여 구체적이며 놀이를 진행하려는 시도적인 행동을 통하여 주의를 끌려고 하기도 하였다.



<그림 3> 아동 B의 상호주의하기의 변화

그래프에서 확인한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평균값은 15분의 평가 상황을 1분씩 나누어 아동 B의 상호주의하기 반응과 시도 행동의 단계를 각각 확인하였고, 이를 총 시간인 15로 나누어 뒤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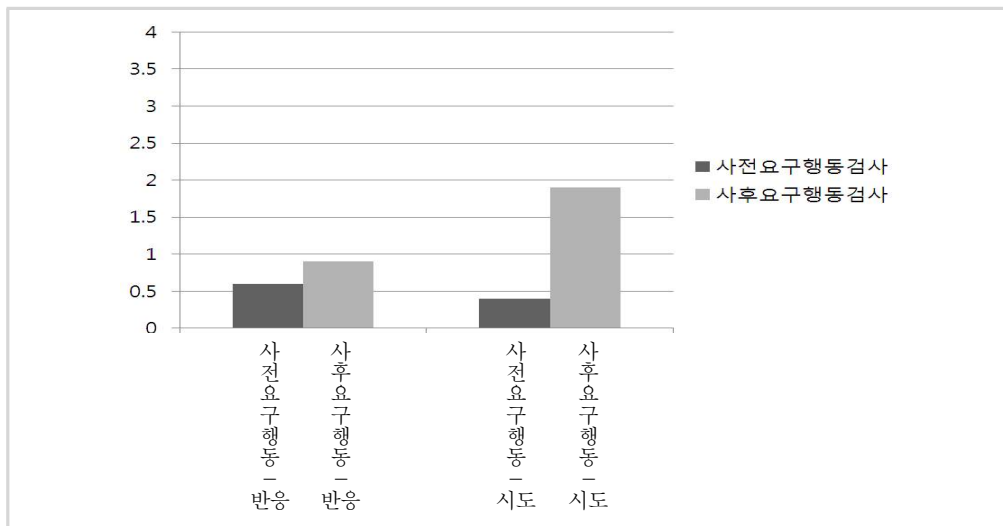
<표 7> 사전·사후 상호주의하기의 평균값 (아동 B)

상호주의하기	평가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평균값 (단계의 합/15분)
			횟수	3회	0회	0회	2회	0회
상호주의하기 반응	사후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평균값 (단계의 합/15분)
		횟수	1회	1회	2회	5회	2회	1.9단계 (28/15)
상호주의하기 시도	사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3.5단계	4단계	평균값 (단계의 합/15분)
		횟수	2회	2회	6회	0회	0회	1.6단계 (24/15)
	사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3.5단계	4단계	평균값 (단계의 합/15분)
		횟수	0회	3회	1회	4회	1회	1.8단계 (27/15)

나. 요구행동

아동 B의 요구행동의 반응은 프로그램 전 평가 시에는 1분간 평균 0.6단계에서 프로그램 이후에 0.9단계로 0.3단계 증가하였다. 아동은 제한에 대한 반응이 사후검사에는 바로 받아드리고 다시 시도하지 않는 행동을 보였고, 제한을 거절할 때에는 ‘아니야.’라는 언어적 표현이 나타났다. 또한 연구자의 요구에 대한 반응은 사전에 제한적으로 나타나던 것이 사후에는 사전보다 다양한 요구에 순응적 반응이 증가하였다.

아동 B의 요구행동의 시도는 프로그램 전 평가 시에는 1분간 평균 0.4단계에서 프로그램 이후에 1.9단계로 1.5단계 증가하였다. 아동 B는 사전보다 놀이에 대한 시도가 증가하였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도의 내용 또한 증가하고 다양해졌다.



<그림 4> 아동 B의 요구행동의 변화

그래프에서 확인한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평균값은 15분의 평가 상황을 1분씩 나누어 아동 B의 요구행동 반응과 시도 행동의 단계를 각각 확인하였고, 이를 총 시간인 15로 나눈 뒤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표 8> 사전·사후 요구행동의 평균값 (아동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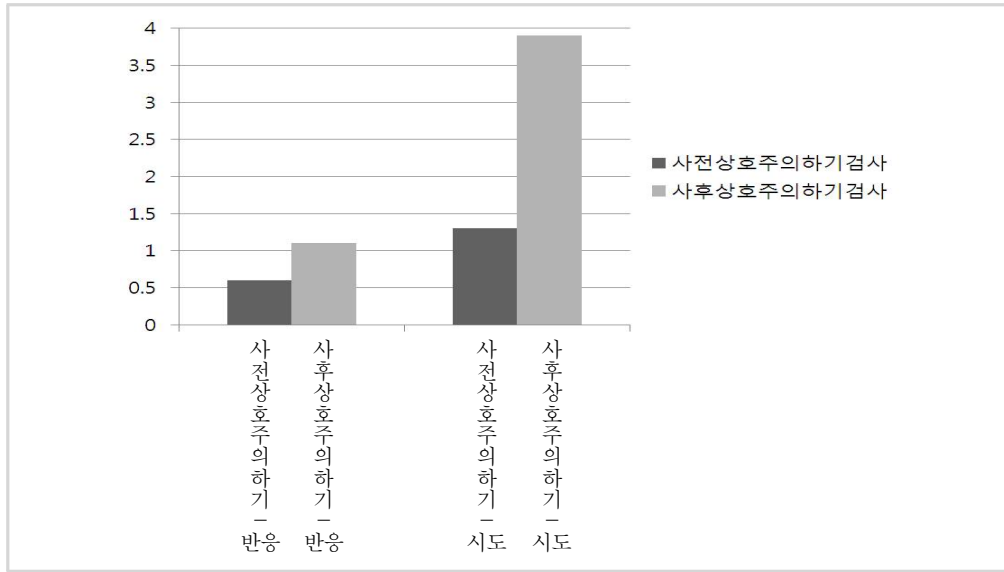
요구 행동 반응	사전 평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3.5단계	4단계	평균값 (단계의 합/15분)
		횟수	0회	3회	1회	0회	0회	0.6단계 (9/15)
	사후 평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3.5단계	4단계	평균값 (단계의 합/15분)
		횟수	1회	3회	2회	0회	0회	0.9단계 (13/15)
요구 행동 시도	사전 평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3.5단계	4단계	평균값 (단계의 합/15분)
		횟수	0회	0회	2회	0회	0회	0.4단계 (6/15)
	사후 평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3.5단계	4단계	평균값 (단계의 합/15분)
		횟수	0회	0회	7회	0회	2회	1.9단계 (29/15)

3. 아동 C

가. 상호주의하기

아동 C의 상호주의하기 반응은 프로그램 전 평가 시에는 1분간 평균 0.6에서 프로그램 이후에 1.1로 0.5단계 증가하였다. 아동은 질문에 대한 반응이 프로그램 후 평가 시에 사전검사보다 두 단어를 이용한 문장이 나타나고 질문에 대한 반응의 양이 많아졌다.

아동 C의 상호주의하기 시도는 프로그램 전 평가 시에는 1분간 평균 1.3에서 프로그램 이후에 3.9로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주의를 끌기 위한 시도는 프로그램 후 평가 시에 놀이를 하며 자신의 놀이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두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며 자신의 놀이에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였다.



<그림 5> 아동 C의 상호주의하기의 변화

그래프에서 확인한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평균값은 15분의 평가 상황을 1분씩 나누어 아동 C의 상호주의하기 반응과 시도 행동의 단계를 각각 확인하였고, 이를 총 시간인 15로 나눈 뒤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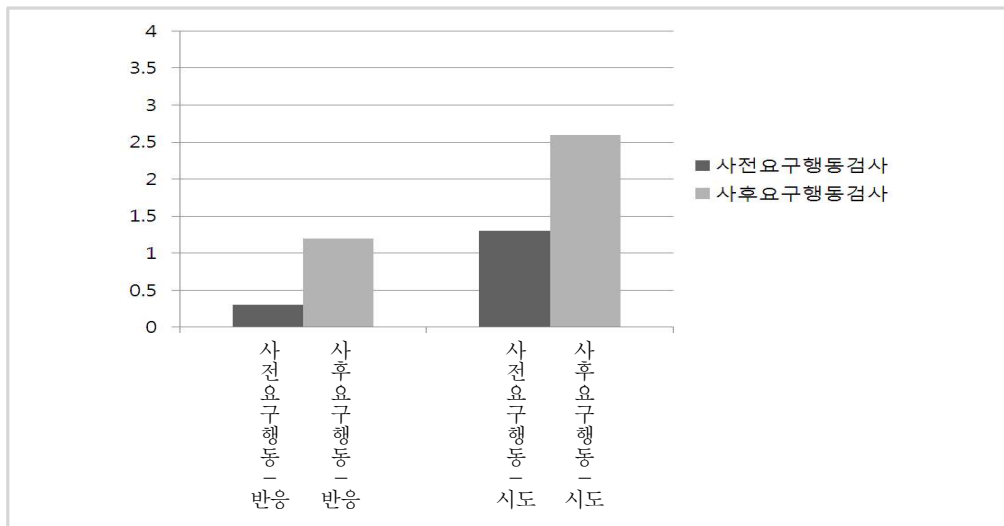
<표 9> 사전·사후 상호주의하기의 평균값 (아동 C)

상호주의하기 평가	사전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평균값 (단계의 합/15분)
		횟수	1회	1회	1회	2회	0회	0.6단계 (9/15)
상호주의하기 반응	사후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평균값 (단계의 합/15분)
		횟수	0회	0회	0회	3회	2회	1.1단계 (17/15)
상호주의하기 시도	사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3.5단계	4단계	평균값 (단계의 합/15분)
		횟수	1회	1회	2회	2회	1회	1.3단계 (19/15)
상호주의하기 시도	사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3.5단계	4단계	평균값 (단계의 합/15분)
		횟수	0회	0회	0회	4회	11회	3.9단계 (58/15)

나. 요구행동

아동 C의 요구행동의 반응은 프로그램 전 평가 시에는 1분간 평균 0.3단계에서 프로그램 이후에 1.2단계로 0.9단계 증가하였다. 아동 C는 사전과 사후검사 시 모두 놀이를 제한하거나 퇴실을 요청할 때 거부적이었으며, 연구자의 요구에 대하여서는 아동의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의 지시에도 잘 이해하고 따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아동 C의 요구행동의 시도는 프로그램 전 평가 시에는 1분간 평균 1.3단계에서 프로그램 이후에 2.6단계로 1.3단계 증가하였다. 아동 C는 프로그램 이후에 요구하는 시도가 구체적이고 언어적으로 나타났으며 역할놀이의 요청 또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할 때에도 사전에는 언어 없이 바라보거나 울음소리를 내며 표현하던 것에서 ‘도와주세요, 잘 안되요.’등 정확한 언어적인 표현이 나타났다.



<그림 6> 아동 C의 요구행동의 변화

그래프에서 확인한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평균값은 15분의 평가 상황을 1분씩 나누어 아동 C의 요구행동 반응과 시도 행동의 단계를 각각 확인하였고, 이를 총 시간인 15로 나눈 뒤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표 10> 사전·사후 요구행동의 평균값 (아동 C)

요구 행동 반응	사전 평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3.5단계	4단계	평균값 (단계의 합/15분)
		횟수	0회	1회	1회	0회	0회	0.3단계 (5/15)
	사후 평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3.5단계	4단계	평균값 (단계의 합/15분)
		횟수	0회	0회	1회	4회	1회	1.2단계 (18/15)
요구 행동 시도	사전 평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3.5단계	4단계	평균값 (단계의 합/15분)
		횟수	0회	0회	4회	2회	0회	1.3단계 (19/15)
	사후 평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3.5단계	4단계	평균값 (단계의 합/15분)
		횟수	0회	0회	5회	1회	5회	(38.5/15)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발달지체아동의 상호주의하기 및 요구행동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놀이·음악통합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발달지체아동 3명에게 각각 놀이·음악통합치료 프로그램을 12회기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에서 일어난 변화를 관찰 분석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평가를 실시하여 상호주의하기 및 요구행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였다. 자료 분석에 나타난 결과를 기초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음악통합치료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 나타난 상호주의하기의 변화에 영향이 있었다. 아동들은 선호하는 놀이가 형성되면서 놀이감에 대한 응시 및 응시 전환이 증가하였으며, 소리와 언어를 사용하며 연구자의 주의를 끄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숙희(2007)의 발달지체아동이 반응 행동 훈련이라는 중재 후에 상호주의하기 반응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도 일치된다. 또한 김영미(2003)의 연구에서 발달놀이치료를 발달장애아동에게 실시한 결과 상호주의하기에 있

어, 치료자와 상황에 맞는 눈맞춤이 가능해졌으며, 치료사의 시선이나 지적하기에 따라 시선을 이동하고 치료사와 움직이는 사물 등을 번갈아 쳐다보는 등 상호주의하기에서 많은 향상을 보인 것과 일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경민(2013)과 송은정(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발달지체아동에게 중재를 통하여 사회적 반응성 즉, 상호주의하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김영미(2003)의 연구에서 요구행동에 있어 호명에 반응을 보이거나 간단한 지시를 수행한다던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장난감이 있을 때 손으로 가리키며 도움을 청하는 등의 요구행동이 많은 향상을 보인 것과 일치한 결과이다. 또한 김은화와 최세민(2011)의 통합예술치료가 지적장애 아동의 적응행동을 증가시키고, 부적응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에게 통합치료가 적응행동과 긍정적인 반응 행동이 나타난 것에 대해 지지된다.

둘째, 놀이·음악통합치료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 나타난 요구행동의 변화에 영향이 있었다. 아동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연구자의 요구에 반응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타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상호주의하기와 요구행동의 변화는 놀이치료와 음악치료를 통합하여 촉진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김효선과 선우현(2014)은 가족놀이치료에 음악치료를 통합한 가족놀이음악치료 프로그램을 부모-자녀에게 실시한 연구 결과 가족들은 사회적 반응과 감정 표현의 변화, 자기표현과 가족활동 참여도에서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난 연구로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서종미(2013)의 연구에서 집단놀이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의 부적응 행동, 정서조절 및 사회적 관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며 놀이치료에 음악치료가 지닌 치료적인 이점이 통합될 때 치료의 효과가 더 강화된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본 연구는 발달지체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치료와 음악치료를 통합한 놀이·음악 통합 치료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개발하여 발달지체아동의 상호주의하기와 요구행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발달지체아동에게 놀이와 놀이치료를 중재한 연구(김정연, 2003; 이화량, 2009)에서 놀이감과 정해진 놀이를 중심으로 하여 아동들에게 중재를 제공한 연구나 음악도구가 중심이 되어 중재한 연구(박은주, 2008; 이아련, 2008; 장혜원, 2002)에서 놀이도구와 음악도구가 세팅된 치료실에서 진행되는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놀이치료와 음악치료 모두에 기본지식을 함양한 치료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놀이 재료 및 간단한 악기를 적용하여 어느 공간에서나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의 방법론에서 아쉬운 점은 연구의 효과가 놀이치료와 음악치료의 통합치료로서 기인한 것인지 놀이치료, 음악치료 중의 어느 한 가지에서 효과가 기인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후 연구에서는 놀이치료군, 음악치료군, 놀이·음악 통합치료군을 나누어 처치의 효과성을 비교한다면 통합치료의 촉진적 효과를 더욱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사례 수가 적어 연구의 결과가 임상적으로는 유의미하지만 일반화 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보다 많은 연구대상을 표집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이후에도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의 지속에 대한 확인을 하는 연구를 제언해 본다.

참고 문헌

- 국립특수교육원(1994). KISE 발달척도 - 2. 사회정서행동발달. 안산: 동 부.
- 김영미(2003). 발달놀이치료가 발달장애아동의 상호주의하기와 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화·최세민(2011). 통합예술치료가 지적장애아동의 적응행동과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 연구, 7(1), 117-140.
- 김정연(2003). 통합놀이활동이 발달지체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선·선우현(2014). 가족놀이음악치료를 통한 부모-자녀관계 증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1), 65-91.
- 박은주(2008). 그룹 음악활동을 통한 발달지체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연구: 악기연주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종미(2013). 집단음악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선우현(2009). 조음·음운 장애 아동을 위한 부모-자녀 놀이치료와 언어치료의 협력적 통합치료. 한국통합치료학회, 1(2), 167-176.
- 성묘진(2004). 독서치료와 미술치료를 통합한 예술치료프로그램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은정(2000). 마음이론 전조로서의 상호주의하기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민(2013). 환경중심 상호주의하기 중재가 자폐성장애유아의 사회적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소현(2002). 장애유아의 사회-의사소통 능력 증진: 유치원 교육과정 내에서의 적용을 위한 이론과 실제. 제 7회 이화특수교육 학술대회(pp 3-49).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 이소현(2003). 유아특수교육. 서울: 학지사.
- 이아련(2008). 그룹리듬악기연주활동에 따른 발달지체유아의 모방능력에 관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실(2010). 통합예술치료가 탈북청소년의 외상 후 자아정체성, 자아존중감,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극 놀이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진(2008). 통합적 미술치료가 만성정신분열증 환자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화량(2009). 자유선택 상호작용놀이가 발달지체유아 사회적응기술에 미치는 효과.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숙희(2007). 자폐성향을 보이는 발달지체아동의 상호주의하기 반응 행동 훈련의 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혜원(2002). 음악활동이 통합된 발달지체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영(2001). 통합된 유치원에서의 사회극놀이 활동이 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정(2002). 구조화된 극화놀이 훈련이 발달지체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Egel, A. L., & Shafer, M. S.(1983). *The use of explicitly trained peers to facilitate the social behavior of autistic children*. College Park: Maryland University. (ERIC Document Services Reproduction Service No. 295-400)
- Guralnick, M. J.(2001).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and early childhood inclusion: Need for alternative approaches*. In M. J. Guralnick (Ed.), *Early childhood inclusion: Focus on change*(pp. 481-502). Baltimore: Brookes.
- Mundy, P., Delgado, C., Block, J., Venezia, M., Hogan, A & Seibert, J.(2003). *A manual for the abridged 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s (ESC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ami, Coral Gables, FL.

<부록> 각 영역별 검사지

1. 상호주의하기(반응)

0단계

01. 어른이 적극적으로 아동에게 장난감을 보여줬을 때, 아동이 사물을 2초 이상 쳐다본다.

1단계

02. 어른이 소극적으로 장난감을 보여줬을 때, 아동이 장난감을 2초 이상 쳐다본다.

03. 어른이 멀리 있는 장난감이나 그림을 지적했을 때, 아동이 장난감이나 그림을 보지 않고 어른의 손가락만 쳐다본다.

2단계

04. 어른이 ‘저것 봐’라고 말하며 지적하기를 했을 때, 아동이 어른의 손 움직임에 따라 쳐다본다.

05. 아동이 어른의 시선을 따라간다. (어른의 눈을 바라보고 지적한 곳을 바라본 후에 다시 어른을 쳐다본다.)

06. 아동이 어른의 지적하기를 따라간다.

3단계

07. 아동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향한 어른의 시선을 따라간다.

08. 아동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향한 어른의 지적하기를 따라간다.

09. 아동이 뒤를 향한 어른의 시선을 따라간다.

10. 아동이 뒤를 향한 어른의 지적하기를 따라간다.

11. ‘무엇을 찾고 있지? / 무엇을 원하니?’와 같은 어른의 질문에 아동이 장난감을 지적하거나 고개를 끄덕인다.

12. ‘코 / 입이 어디 있지?’ 라고 물었을 때 아동이 각 신체 부위를 지적한다.

13. ‘엄마(혹은 친근한 사람)가 어디 있지?’라고 물었을 때 아동이 엄마를 지적하거나 쳐다본다.

14. ‘곰인형 자동차가 어디 있지?’라고 물었을 때, 장난감 두 개를 보여준다.

15. 아동에게 그림이나 친근한 사람을 지적하며 ‘이게 무엇이지?’ 혹은 ‘누구지?’라고 물었을 때, 아동이 옳게 대답한다.

4단계

16. (14번과 같은 절차) 사물의 이름을 10개 요구한다.

17. 그림책에 있는 10개의 사물이 어디 있는지 아동에게 물었을 때 아동이 10개의 그림을 지적한다.

18. (15번과 같은 절차) 5개 이상의 이름을 답한다.

19. 숨겨진 물건을 찾는다.

20. 어른의 질문에 두 단어로 답한다.

2. 상호주의하기(시도)

1단계

01. 아동이 장난감을 작동하는 동안 어른을 자발적으로 쳐다본다.
02. 어른이 풍선이나 비눗방울을 볼 때, 아동이 어른의 얼굴과 비눗방울이나 풍선을 번갈아 쳐다본다. (아동이 어른의 얼굴을 쳐다보고 난 후 비눗방울을 쳐다보고 다시 어른의 얼굴을 쳐다본다.)
03. 어른이 태엽 감는 장난감 등을 작동시킬 때, 아동이 어른의 얼굴과 움직이는 장난감을 번갈아 쳐다본다.

2단계

04. 아동이 미소 지으면서 어른과 장난감을 번갈아 쳐다본다.

3단계

05. 아동이 장난감을 어른에게 보여주고 장난감과 어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본다.
(이것을 장난감을 작동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06. 아동이 책이나 방에 있는 어떤 것을 지적하고 어른과 자신이 지정한 것을 번갈아 쳐다본다.

3.5단계

07. 아동은 방에 있는 어떤 것의 이름을 말하고 어른의 얼굴과 그 사물을 번갈아 쳐다본다.
08. 아동은 방에 있는 사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한 단어를 사용한다.
(예: ‘깨졌어’ 혹은 ‘뜨거워’).

4단계

09. 사건이나 사물 그림에 대한 어른의 주의를 끌기 위해 두 단어를 사용한다.
10.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두 단어를 사용한다.
11. 어떤 것의 이름이나 어디에 있는지와 같은 질문을 하기 위해 두 단어를 사용한다.

3. 요구행동(반응)

1단계

01. 어른이 아동을 부를 때 아동이 어른을 향해 돌아선다. 이 때 눈마주침은 필요하지 않다.
02. 어른이 아동의 장난감을 당길 때 아동이 저항한다.
03. 아동이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어른이 ‘안돼’ 혹은 아동이 그 행동을 멈추도록 아동을 저지할 때, 아동이 즉시 그 행동을 멈춘다.
04. 아동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아동의 이름을 부르면, 아동이 어른과 눈마주침을 한다.

2단계

05. 아동이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어른이 다른 저지하는 행동 없이 ‘안돼’라고 말하면, 아동이 즉시 그 행동을 멈춘다.

- 06. 검사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어른이 아동에게 ‘그것을 나에게 줄래?’와 같은 요구 사항을 아동이 따른다.
- 07. 눈마주침 한 상태에서 장난감을 뺏으려는 어른에게 화가 나 말과 행동을 함께 보이면서 저항한다.

3단계

<어른이 행동을 하면서 아동에게 요구했을 때, 아동의 반응>

- 08. 손을 내밀면서 ‘나에게 줘’라고 말함.
- 09a. 일어서면서 ‘가자’
- 09b. 의자를 가리키면서 ‘앉아’
- 09c. 팔을 펼치면서 ‘이리 오렴’
- 09d. 지적하면서 ‘저기 앉아’
- 09e. 옷/안경 등을 가리키면서 ‘저것을 입어봐/써봐’
- 09f. 장난감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가져와’

3.5단계

<어른이 행동 없이 말로만 요구했을 때, 아동의 반응>

- 10. ‘나에게 줄래?’
- 11a. ‘그것을 가져와’
- 11b. ‘앉아’
- 11c. ‘이리 온’
- 11d. ‘가자’
- 11e. ‘인형에게 뽀뽀해주렴’
- 11f. ‘인형 머리 빗겨주자’
- 12. 아동이 들고 있는 장난감을 뺏으려고 할 때 아동이 ‘싫어’ 혹은 ‘안돼’와 같은 한 단어를 사용하여 거절한다.

4단계

- 13. 3가지 다른 요구를 아동이 따른다. (예: ‘음식을 주자’ ‘인형 세수하자’와 같은 요구에 아동이 따른다.
- 14. (12번과 같은 절차) 두 단어를 사용하여 거절한다.

4. 요구행동(시도)

1단계

- 01. 움직이는 장난감이 멈추었을 때, 아동이 어른과 눈을 마주친다.
(단, 장난감이 움직이는 동안 어른과 눈마주침을 한 경우는 상호주의하기로 평가)
- 02. 아동이 단순한 2단계의 행동을 보인다.

03. 비눗방울 불기를 멈추었을 때, 아동이 운다.

2단계

04. 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장난감이 있을 때 어른과 눈마주침을 한다.

05. 아동이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자가 넘어져서 아동이 다친 경우)로 불편할 때 어른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 눈마주침과 도와달라는 행동을 한다.

06. 아동에게 장난감을 보여주고 아동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에 장난감을 놓았을 때, 아동이 장난감을 지적하는 것과 같은 행동과 함께 어른과 눈마주침을 한다.

3단계

07. 자동차나 공을 멀리 굴렸을 때 아동이 그 공이나 자동차를 얻기 위한 행동과 함께 눈마주침을 한다.

08. 선반 같은 곳에 있는 장난감을 요구한다.

09. 비눗방울 불기를 멈추었을 때 아동이 눈마주침을 한 상태에서 다시 비눗방울을 불도록 요구한다.

10. 장난감을 가지고 논 후에 어른에게 그 장난감을 주고 다른 장난감을 요구한다.
(이 때 어른이 아동이 준 장난감을 다시 준다면 받지 않는다.)

11. 도움을 요청한다.

12. 아동에게 장난감을 제공했을 때 눈마주침을 한 상태에서 거절한다.

3.5단계

<한 단어 사용>

13. (7번과 같은 절차) 장난감을 향해 걸어가면서 ‘내꺼야’라고 말한다.

14. (13번과 같은 절차) 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15. (9번과 같은 절차) ‘한 번 더’라고 말한다.

16. 장난감은 더 이상 원하지 않을 때 ‘여기 있어’ 혹은 ‘싫어’라고 말한다.

4단계

17. 보이지 않거나 숨겨진 사물이나 장난감을 요구한다.

<두 단어 사용>

18. 두 단어를 사용해서 사물을 요구한다.

19. (9번, 15번과 같은 절차) 두 단어를 사용해서 요구한다.

20. 두 단어를 사용해서 도움을 요청한다.

<Abstract>

The interdisciplinary therapy between play therapy and music therapy's effect on joint attention and Requesting Behaviors of developmental delayed infants

Moon, Eun Hyon · Sunwoo, Hyun
Myongji University,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a play/ music therapy program, which was prepared by integrating play therapy and music therapy and was geared toward development-delayed toddlers, on the joint attention and requesting behavior of development-delayed toddlers, which were the foundation of sociability.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the first attempt to develop an interdisciplinary therapy program geared toward development-delayed toddlers by integrating play therapy and music therapy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joint attention and requesting behavior of the development-delayed infants.

This study offers data taha the play/music therapy program serves to provide better early or preventive intervention for development-delayed children to facilitate their sociability development.

Key words : The interdisciplinary therapy between play therapy and music therapy, development-delayed infant, joint attention, requesting behavior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자기용서의 조절효과

임원범·홍혜영*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자기용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충청 소재의 대학생 중 284명의 자료를 분석 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용서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자기용서와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자기용서는 부적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자기용서는 부적 조절효과를 나타내었으나 목표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 중심성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자기용서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높은 수준의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들에게 자기용서를 통한 치료적 개입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핵심어 : 내현적 자기애, 자기용서, 사회부과 완벽주의

* 교신저자: 홍혜영(hong77@unitel.co.kr)

■ 게재 신청일 : 2015년 1월 12일 ■ 최종 수정일 : 2015년 1월 20일 ■ 게재 확정일 : 2015년 1월 23일

I. 서론

산업화 이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완벽함’은 유능함을 인정받는 필수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현대사회는 높은 기준을 세우고 이에 도달하려는 개인의 노력에 관용적이며, 단시간에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완벽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이정숙, 조성호, 2011). 이러한 ‘완벽함’은 개인의 성공을 위한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하나, 진정한 자기 성취로서의 적응적 심리적 기제가 아닌 자기 능력 이상의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 낮은 자존감과 자기 비하의 부정적 심리 기제가 될 수 있다. 초기의 연구자들은 완벽주의자를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달성하도록 스스로를 강박적으로 밀어붙이며 자신의 가치를 전적으로 생산성과 성취에 기반하여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으며, 철저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정의하였다(Burns, 1980). 완벽주의는 대학생의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심리적 고통과 상당부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데(김현정, 손정락, 2006). 대학생 시기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취업이나 진학 등으로 높은 학업성취가 요구되어 완벽주의 신념이 더욱 강해질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완벽주의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으로 상담실을 찾고 있다(Halgin & Leahy, 1989).

이처럼 완벽주의 초기 연구는 주로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완벽주의의 적응적인 측면을 함께 연구한 다차원적 완벽주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이는 곧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정의에 따라 다양한 측정도구로 개발되었고 그 중 가장 널리 연구에 사용되어 온 것이 Hewitt과 Flett(1991a)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이다. 이에 의하면 완벽주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와 타인지향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사회부과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 그 중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주요 타인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달성되었을 때만 수용 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타인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고 비난을 피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는 신념이다(Flett, Besser, Davis, & Hewitt, 2003). 수행 결과에 대해 외적으로 귀인 하는 경향을 갖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으며 자기개념에 대한 명확성과 현실적인 평가능력이 떨어져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보인다(김아름, 2009). 또한 자신의 수행결과에 덜 만족하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이고 자기구실을 만드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Hobden & Pliner, 1995). 이와 같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되어 완벽주의 세 차원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에서는 긍정 정서, 자존감, 삶의 만족도와는 부적 상관을(Bartsch, 2007), 심리적 소진(Hill, Hall, Appleton, & Kozub, 2008)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며,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을 예측하고(Hewitt & Flett, 1991a), 자살사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ewitt, Newton, Flett, & Callander, 1997). 또한 대학생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아름, 2009).

이러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와의 괴리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내현적 자기애의 특징과 유사하다(이인숙, 2002). 내현적 자기애는 웅대한 자기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착취적인 대인관계를 맺으며 취약한 자기개념과 과민성으로 내향성과 자신감 부족을 보이며(강선희, 정남운, 2002), 자기개념이 낮고(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자신이 내적으로 경험하는 자기와 이상적 자기와의 불일치를 높게 경험한다(이명신, 2010). 또한 타인에 대한 인식 역시 부정적으로, 타인을 매우 적대적으로 인식하며, 공격적, 비사회적이고 수줍음이 많아 사회적 상황에서 관계를 회피하거나 억제하므로 대인관계에 소극적이다(이준득 등, 2007). 선행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불안, 완벽주의, 강박 증상에 영향을 미치며(박동숙, 2004), 만족스럽지 못한 수행에 대한 뿌리 깊은 수치심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높이고(이항순, 2011), 내현적 자기애를 높게 갖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김여량, 2013; 이원희, 2001; 이원희, 안창일, 2005).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민감성과 취약성은 사회의 시선이나 기준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내현적 자기애 척도(CNS)를 개발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과 착취/자기중심성 요인은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두 유형의 공통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요인은 내현적 자기애의 고유요인으로 보고되었다. 박영주(2013)의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고유요인인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이 더욱 높은 상관을 보고한 것으로 볼 때 내현적 자기애의 고유요인인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더욱 큰 영향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면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감소시키는 요인에 대한 연구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선행연구들은 완벽주의와 정신병리, 심리적 부적응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용서는 ‘자신의 객관적인 잘못을 인식했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를 버리고 자기 처벌적인 신념과 느낌, 행동들이 자신에 대한 연민, 관대함, 사랑과 같은 호의적인 신념과 느낌, 행동들로 바뀌는 과정’으로(Wohl, Deshea, & Wahkinney, 2008),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수용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기수용의 과정으로 정의된다(Hall & Fincham, 2005). 이러한 자기용서는 우울 등 부정적 정서와 부적 상관관(Well et al., 2008), 삶의 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정서와 정적 상관관(Thompson, Snyder, Hoffman, Michael, Rasmussen, Billings, Heinze, Neufeld, Shorey, Roberts, & Roberts, 2005), 성격적 요인으로는 신경증과 일관되게 부적 상관관(Well et al., 2008)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이아룡, 구재선, 2009) 다양한 심리 부적응과 일관적인 관련을 보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는 상반되는 특징을 갖는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완벽주의가 자기 용서를 감소시키고(Mistler, 2010) 완벽주의 하위 차원 중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용서를 저해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임을 보고하며(박해인, 2013), 완벽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은 조건적인 자기수용 태도로 타인의 사랑을 얻거나 한 인간으로 수용되기 위함임을 볼 때(Greenspon, 2000),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자기수용의 자기용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같은 부적응적 심리기재의 치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유사하게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숭배욕구가 높으며 공감과 친밀감이 결여된 상태로 책임의 수용보다 타인을 비난할 가능성이 높은 내현적 자기애 또한 자기용서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김지연, 2010)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대한 자기용서의 부적 영향력이 더욱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 변인의 관계에서 자기용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상담사례개념화를 통한 전략적 접근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청 소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336부 중 불성실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28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118명, 여자가 166명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86명, 2학년 63명, 3학년 61명, 4학년 74명으로 평균연령은 21.38(SD2.74)세이다.

2. 측정 도구

가.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Hewitt과 Flett(1991a)이 방향성에 따라 자기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타인지향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사회부과 완벽주의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의 3차원으로 분류하여 개발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이미화(2001)가 번안하고 정승아(2013)가 5점 척도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의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전체 45개 문항으로 각 하위차원들은 각각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최소 45점에서 최대 2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승아(2013)의 연구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72이다.

나.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개발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m Scale: CSN)를 사용하였다. 강선희 등(2002)은 요인분석을 통해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의 5개 하위척도를 도출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의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전체 45개 문항으로 점수 범위는 최소 45점에서 최대 2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강선희 등(2002)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척도가 .91이었으며, 각 하위요인별로는 순서대로 .92, .82, .78, .84, .8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순서대로 .93, .82, .78, .84, .79이다.

다. 한국판 상태적 자기용서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State Self-Forgiveness Scale-K:SSFS-K)

자기용서척도는 Wohl 등(2008)이 개발한 상태적 자기용서 척도(State Self-Forgiveness Scale : SSFS)를 배소현(2010)이 번안한 SSFS-K(The Korean version of the State Self-Forgiveness Scale: SSFS-K)를 사용하였다. 배소현(2010)의 연구에서 자기용서는 “자기 처벌적 상태(PUNITIVE)”와 “자기 수용적 상태(POSITIVE)”의 2요인 구조로 나타났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의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전체 16개 문항으로 점수 범위는 최소 16점에서 최대 6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용서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배소현(2010)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88이다.

3.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처리 및 분석은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중 공선성을 위해 VIF를 확인하였고, 각 변수들을 평균중심화(Mean-Centering)한 후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완벽주의와 자기용서, 내현적 자기에 대한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절효과의 확인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내현적 자기와 자기용서의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 저 집단/고 집단으로 분류한 후,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내현적 자기애,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기용서의 상관관계

<표 1> 내현적 자기애, 자기용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변인	1	1-1	1-2	1-3	1-4	1-5	2	3
1 내현적 자기애(전체)	1	.75***	.64***	.68***	.90***	.71***	-.50***	.39***
1-1 목표불안정	.75***	1	.23***	.33***	.55***	.48***	-.35***	.30***
1-2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64***	.23***	1	.42***	.56***	.21***	-.28***	.25***
1-3 착취/자기중심성	.68***	.33***	.42***	1	.54***	.33***	-.19**	.24***
1-4 과민/취약성	.90***	.55***	.56***	.54***	1	.64***	-.55***	.35***
1-5 소심/자신감 부족	.71***	.48***	.21***	.33***	.64***	1	-.45***	.30***
2 자기용서	-.50***	-.35***	-.28***	-.19**	-.55***	-.45***	1	-.15*
3 사회부과 완벽주의	.39***	.30***	.25***	.24***	.35***	.30***	-.15*	1
평균	2.67	2.58	3.23	2.17	2.66	2.73	2.73	2.82
표준편차	.51	.85	.64	.58	.67	.67	.48	.47
왜도	-.14	.17	-.18	-.03	.11	.04	-.10	-.26
첨도	-.11	-.59	.09	-.34	-.27	-.43	.22	.38

* $p < .05$, ** $p < .01$, *** $p < .001$

완벽주의와 내현적 자기애, 자기용서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는 조절변인인 자기용서와 유의미한 부적상관($r = -.50, p < .001$)을, 종속변인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는 유의미한 정적상관($r = .39, p < .001$)을 나타내었다. 조절변인인 자기용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유의미한 부적상관($r = -.15, p < .05$)을 보였다.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들과 자기용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목표불안정($r = -.35, p < .001$),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r = -.28, p < .001$), 착취/자기중심성($r = -.19, p < .01$), 과민/취약성($r = -.55, p < .001$), 소심/자신감 부족($r = -.45, p < .001$) 모두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들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목표불안정($r = .30, p < .001$),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r = .25, p < .001$), 착취/자기중심성($r = .24, p < .001$), 과민/취약성($r = .35, p < .001$), 소심/자신감 부족($r = .30, p < .001$)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2.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자기용서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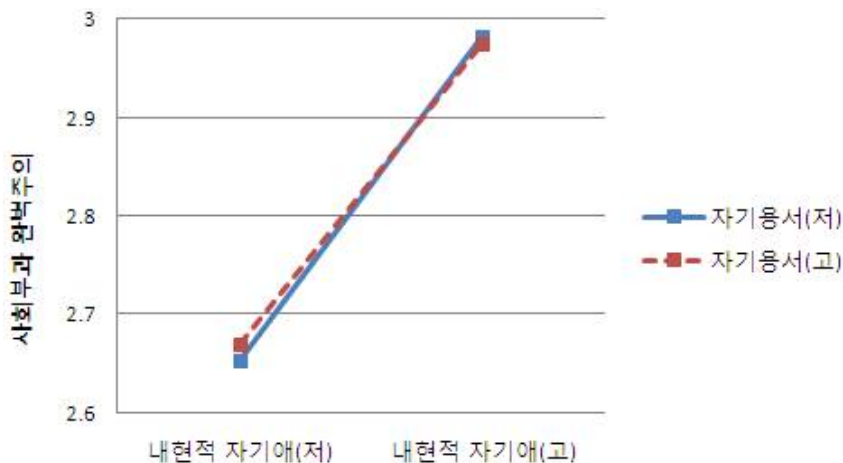
<표 2>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자기용서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1단계(β)	2단계(β)	VIF
전체	내현적자기애(A)	.39***	.40***	1.33
	자기용서(B)	.06	.08	1.36
	A×B		-.22*	1.02
	R ²	.16	.17*	
	F	26.31***	19.29***	
사회부과 완벽주의	목표불안정(A)	.16***	.15***	1.15
	자기용서(B)	-.05	-.05	1.14
	A×B		-.06	1.01
	R ²	.09	.09	
	F	14.13***	9.70***	
사회부과 완벽주의	인정욕구 / 거대자기 환상(A)	.17***	.17***	1.09
	자기용서(B)	-.08	-.08	1.19
	A×B		-.004	1.10
	R ²	.07	.07	
	F	10.68***	7.10***	
하위 요인	착취/자기중심성(A)	.18***	.18***	1.04
	자기용서(B)	-.10	-.10	1.05
	A×B		.01	1.01
	R ²	.07	.07	
	F	10.55***	7.02***	
사회부과 완벽주의	과민/취약성(A)	.27***	.27***	1.43
	자기용서(B)	.06	.08	1.45
	A×B		-.18*	1.02
	R ²	.12	.14*	
	F	19.95	15.17	
사회부과 완벽주의	소심/자신감 부족(A)	.21***	.20***	1.26
	자기용서(B)	-.02	-.01	1.26
	A×B		-.26**	1.00
	R ²	.09	.12**	
	F	13.81***	13.14***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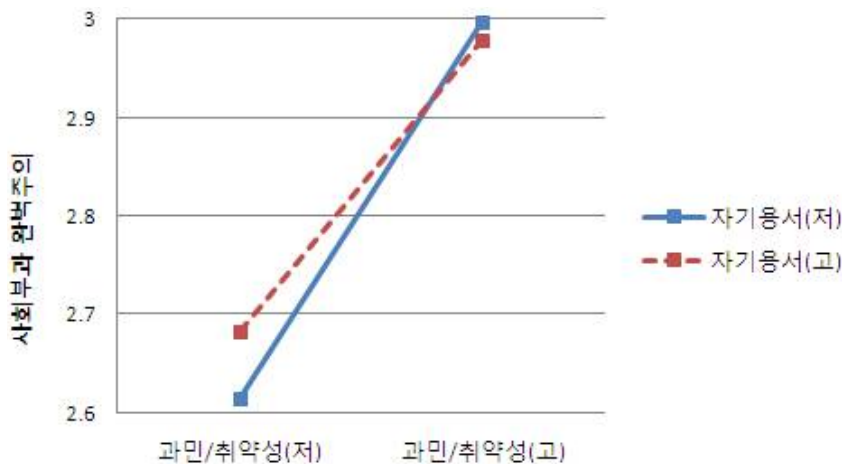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자기용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으며($\beta=.40, p<.001$),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용서의 상호작용 효과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관계에 유의미한 부적 조절 효과를 나타내었다($\beta=-.22, p<.05$). 이는 자기용서의 수준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로 인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수준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목표불안정($\beta=-.05$), 인정욕구/거대 자기 환상($\beta=-.08$), 착취/자기중심성($\beta=-.10$), 과민/취약성($\beta=.08$), 소심/자신감 부족($\beta = -.01$)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자기용서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용서의 상호작용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을 기준으로 내현적 자기애 저 집단과 내현적 자기애 고 집단, 그리고 자기용서 저 집단과 자기용서 고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증가하며, 내현적 자기애 고집단의 경우 자기용서 수준이 증가할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수준의 내현적 자기애를 보고하는 사람들이 자기용서를 많이 할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수준이 낮아짐을 시사한다. 집단별 사례의 수는 내현적 자기애 저 집단, 자기용서 저 집단 50명, 내현적 자기애 저 집단, 자기용서 고 집단 97명, 내현적 자기애 고 집단, 자기용서 저 집단 94명, 내현적 자기애 고 집단, 자기용서 고 집단 43명이다.



<그림1>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자기용서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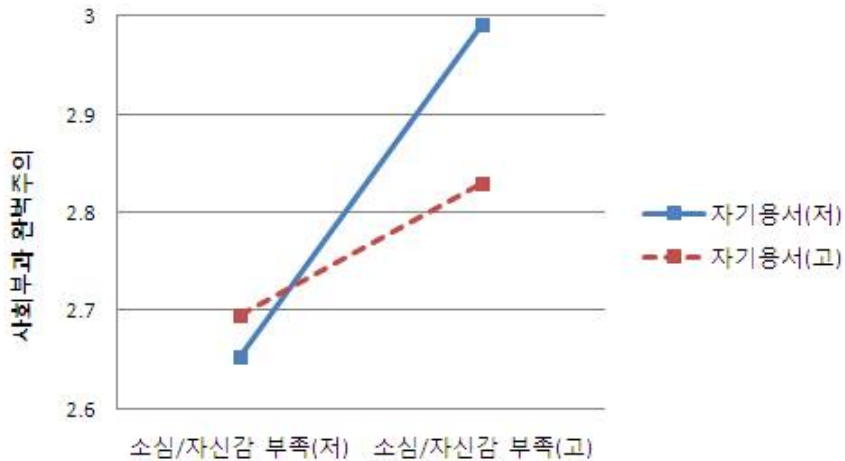
또한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요인인 목표불안정($\beta=-.06$),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beta=-.004$), 착취/자기중심성($\beta=.01$)와 자기용서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과민/취약성($\beta=-.18, p<.05$), 소심/자신감 부족($\beta=-.26, p<.01$)에 대한 자기용서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민/취약성과 자기용서의 상호작용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을 기준으로 과민/취약성 저 집단과 과민/취약성 고 집단, 그리고 자기용서 저 집단과 자기용서 고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과민/취약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증가하며, 과민/취약성 고집단의 경우 자기용서 수준이 증가할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수준의 과민/취약성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자기용서를 많이 할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수준이 낮아짐을 시사한다. 집단별 사례의 수는 과민/취약성 저 집단, 자기용서 저 집단 41명, 과민/취약성 저 집단, 자기용서 고 집단 96명, 과민/취약성 고 집단, 자기용서 저 집단 91명, 과민/취약성 고 집단, 자기용서 고 집단 41명이다.



<그림2> 과민/취약성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자기용서의 조절효과

마지막으로 소심/자신감 부족과 자기용서의 상호작용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을 기준으로 소심/자신감 부족 저 집단과 소심/자신감 부족 고 집단, 그리고 자기용서 저 집단과 자기용서 고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소심/자신감 부족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증가하며, 소심/자신감 부족 고집단의 경우 자기용서 수준이 증가할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수준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수준의 소심/자신감 부족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자기용서를

많이 할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수준이 낮아짐을 시사한다. 집단별 사례의 수는 소심/자신감 부족 저 집단, 자기용서 저 집단 45명, 소심/자신감 부족 저 집단, 자기용서 고 집단 73명, 소심/자신감 부족 고 집단, 자기용서 저 집단 88명, 소심/자신감 부족 고 집단, 자기용서 고 집단 53명이다.



<그림3> 소심/자신감 부족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자기용서의 조절효과

IV.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내현적 자기애, 자기용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규명하고,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자기용서의 조절효과를 알아봄으로써 내담자의 이해와 사례 개념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게 나타날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여량, 2013; 박동숙, 2004; 이원희, 2001; 이원희, 안창일, 2005; 이항순, 2011; Hewitt & Flett, 1991). 즉, 타인의 평가, 타인이 기대하는 기준 등에 지나치게 민감하면서 항상 외부의 시선과 기준에 매여 있는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은 주요 타인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달성되었을 때만 수용 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

부과 완벽주의의 예측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내현적 자기애의 5가지 하위요인은 모두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목표불안정과,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 완벽주의를 부과 받았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높음을 말한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으며 직업적이고 사회적으로 불확실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목표불안정과, 힘과 명예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칭찬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는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적인 대인관계, 특권의식, 자기중심적인 착취/자기중심성, 그리고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여겨 낮은 자존감을 나타내는 과민/취약성과 소심/자신감의 특징이, 사회로부터 가치 및 기준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고 낮은 자존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웅대한 자기상을 포기하지 못해 자기개념의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특징과 유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김아름, 2009; 이원희, 2001; Hewitt & Flett, 1991; Wink, 1991).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용서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고(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자기용서를 방해하며(Strelan, 2007), 자기수용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이정민, 2009). 내현적 자기애가 높게 나타날수록 가해 상황에 대한 통제 소재를 자기에게로 돌리며 죄책감과 자기비난으로(Branscombe, Wohl, Owen, Allision, & N'gbala, 2003), 자기수용으로의 자기용서를 방해함을 알 수 있다.

자기용서와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자기용서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용서를 낮추는 요소이며(박해인, 2013; Mistler, 2010),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 수용이 낮다는 관련 연구와도 그 흐름을 같이한다(Flett et al, 2002).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외부에 의해 부과되었다고 믿는 기준에 자신을 비교하여 자기비난과 자기처벌 등의 부적응적 심리특성과 관련 있는 반면(Hewitt & Flett, 1991), 자기용서는 삶의 만족도(Thompson et al., 2005)와 같은 적응적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어 두 변인 간의 부적의 상관이 있음을 예측한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즉,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자기 수용의 과정이자 자기 존중의 회복으로의 자기용서는(Holmgren, 1998), 타인으로부터 높은 수행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에 자신을 평가하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낮추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자기용서는 부적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내현적 자기애가 높게 나타나는 사람이 자기용서를 경험할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감소하는 것으로 자기용서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부적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박해인, 2013; Mistler, 2010). 이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수용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기수용으로 서의 자기용서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며 나아가 부정적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과민/취약성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자기용서가 유의미한 부적 조절변수 역할을 하였다. 즉, 과민/취약성이 높게 나타나는 사람이 자기용서를 경험할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삶이 불행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평가에 예민하고 취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일수록 자기용서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수용이 낮다는 연구와도 그 흐름을 같이한다(Flett et al, 2002).

소심/자신감 부족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의 관계에서도 자기용서가 유의미한 부적 조절변수 역할을 하였다. 즉, 소심/자신감 부족이 높게 나타나는 사람이 자기용서를 경험할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감소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내향적이며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자기용서를 통해 타인에 대해 보다 친근하고 호의적이며, 타인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Walker & Gorsuch, 2002). 그러나 목표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의 관계에서 자기용서는 유의미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상담 장면에서 높은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내담자는 주요 타인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달성되었을 때만 수용 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평가나 인정과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자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기용서를 통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연구의 범위와 대상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응답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평소 크게 지각하지 않았던 자기용서 경험을 설문을 통해 회상함으로써 기억에 대한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응답자

자기 보고 외에 관찰자 평가 및 검사 등 다각적인 자료 수집 및 평가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중 하나인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용서를 연구의 주제로 제한하였으나 타인용서, 상황용서 등 다른 변인들과 함께 종합적인 영향력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응답자들의 가해사건에 대한 강도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기용서의 경우 심각한 상처나 피해를 주었을 경우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학교 폭력 가해자 등 더욱 심각한 가해 경험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자기용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으나 큰 영향력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낸 것(박해인, 2013)과 다른 결과로 표본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반영한 추후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강선희·정남운(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김아름(2009).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존감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여량(2013).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연(2010). 수치심, 죄책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용서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정·손정락(2006).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45-361.
- 박동숙(2004). 내현적 자기애와 불안, 완벽주의, 강박증상간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세란·신민섭·이훈진(2005).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 한국임상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 박영주(2013).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해인(2013). 용서신념과 완벽주의가 대학생의 용서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배소현(2010). 한국판 자기용서 상대 척도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명신(2010). 자기불일치, 완벽주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미화(2001). 완벽주의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 성취목표,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아롱·구재선(2009). 용서와 성격 특성의 관계: 누가 용서를 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3), 89-105.
- 이원희(2001). 자기애와 완벽주의, 적대감 및 자기 효능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원희·안창일(2005). 자기애와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19-36.

- 이인숙(2002).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과 대인불안 및 방어성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민(2009). 자기에와 공격성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숙·조성호(2011). 완벽주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정욕구, 자기강화, 성공-실패경험의 매개역할. *학생생활상담*, 29, 35-58.
- 이준득·서수균·이훈진(2007).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463-477.
- 이향순(2011). 내현적 자기에와 수치심, 완벽주의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승아(2013). 대학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의 관계에서 수치심 및 부정적 인지대처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khtar, S., & Thomson, J. A.(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Bartsch, D.(2007). Prevalence of body dysmorphic disorder symptoms and associated clinical features among Australian university students. *Clinical Psychologist*, 11(1), 16-23.
- Branscombe, N. R., Wohl, M. J., Owen, S., Allison, J. A., & N'gbala, A.(2003). Counterfactual thinking, blame assignment, and well-being in rape victim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5(4), 265-273.
- Burns, D. D.(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14(6), 34-52.
- Flett, G. L., Besser, A., Davis, R. A., & Hewitt, P. L.(200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depression.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21(2), 119-138.
- Flett, G. L., Hewitt, P. L., Oliver, J. M., & McDonald, S.(2002). *Perfectionism in children and their parents: A developmental analysis*. In G. L., Flett & P. L. Hewitt(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89-132).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Greenspon, T. S.(2000). "Healthy Perfectionism" is an Oxymoron!: Reflections on the Psychology of Perfectionism and the Sociology of Science. *Journal of Advanced Academics*, 11(4), 197-208.

- Halgin, R. P., & Leahy, P. M.(1989). Understanding and treating perfectionist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2), 222-225.
- Hall, J. H., & Fincham, F. D.(2005). Self-forgiveness: The Stepchild of Forgiveness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5), 621-637.
- Hewitt, P. L., & Flett, G. L.(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1991a).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1), 98-101.
- Hewitt, P. L., Newton, J., Flett, G. L., & Callander, L.(1997). Perfectionism and Suicide Ideat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2), 95-101.
- Hill, A. P., Hall, H. K., Appleton, P. R., & Kozub, S. A.(2008). Perfectionism and burnout in junior elite soccer players: The mediating influence of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9(5), 630-644.
- Hobden, K., & Pliner, P.(1995). Self-handicapping and dimensions of perfectionism: Self-presentation vs self-protec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4), 461-474.
- Holmgren, M. R.(1998). Self-forgiveness and Responsible Moral Agency. *The Journal of Value Inquiry*, 32, 75-91.
- Mistler, B. A.(2010). *Forgiveness, perfectionism and the role of self-compa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 Strelan, P.(2007). Who forgives others, themselves, and situations? The roles of narcissism, guilt, self-esteem, and agreeabl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2), 259-269.
- Thompson, L. Y., Snyder, C. R., Hoffman, L., Michael, S. T., Rasmussen, H. N., Billings, L. S., Heinze, L., Neufeld, J. E., Shorey, H. S., Roberts, J. C., & Roberts, D. E.(2005). Dispositional forgiveness of self, others, and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73, 313-359.
- Walker, D. F., & Gorsuch, R. L.(2002). Forgiveness within the Big Five personality model.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32(7), 1127-1137.

Wink, P.(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Wohl, M. J. A., Deshea, L., Wahkinney, R. L.(2008). Looking within : Measuring state self-forgiveness and its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40(1), 1-10.

<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forg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Lim, Won Bum·Hong, Hye young
Myongji University, Myongji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forg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college students perceived. For this the questionnaire was carried out to 336 college students in Seoul, Gyeonggi, and Chungcheong, and the study materials of 284 persons were used for the analysis among them. Covert Narcissism criterio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criterion, and Korean-version state self-forgiveness criterion were used, and the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Covert Narcissism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Covert Narcissism and self-forgivenes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and self-forgiveness and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Second, Covert Narcissism predicted the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significantly and self-forgiveness showed the nega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lso, self-forgiveness showed the nega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hypersensitiveness/vulnerability, timidity/lack of confidence which were the sub-factors of Covert Narcissism.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forgiveness was not significa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al instability, acknowledgement desire/giant self-illusion, exploitation /self-centeredness and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These study results revealed self-forgiveness had the moderating effect in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implied that the therapeutic involvement was possible through self-forgiveness to clients suffering from the psychological difficulty due to a high level of Covert Narcissism and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during consultat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Key words : covert narcissism, self-forgiveness,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통합치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과 관련된 연구 활동의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과정을 정직하게 수행해야 한다. 연구과정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디자인의 설계,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호, 결과의 분석, 연구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이 포함된다.

② 연구자는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중복 게재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③ 본 향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연구자는 연구 수행 시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기관과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과정, 및 결과보고 등의 연구전반에 걸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 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한다.

③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존중한다.

제4조 (연구 부정행위) 본 학회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학회지 발간 이후 적발 시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물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 연구결과물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③ 표절: 본인이나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물을 원저자 승인 없이 인용, 또는 참조 없이 도용 하는 행위
- ④ 중복게재: 1)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없다.
2)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연구 참여자 보호) 연구자는 각자의 연구 활동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신적,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시행 전 반드시 연구 참여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연구 절차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동의를 받는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이 심의대상자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당 심의 건에 대한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여 그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연구윤리심의규정) 윤리위원회는 아래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그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심의
- ② 본 학회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사항 심의
- ③ 연구의 진실성 검증, 검증 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와 심의대상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 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해당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2) 해당 연구자의 논문 투고 3년간 금지
 -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 5) 제명
 -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첨 2>

투고규정

가. 투고논문의 범위는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및 심리상담적 이론과 접근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시각의 연구 및 관련 주제를 다룬 국문 또는 영문논문으로서 투고 자격은 학회정회원으로 한다. 단, 논문 등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여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투고논문 제출은 e-mail을 통해 파일을 전송한다. 원고작성 시 투고규정에서 정한 “논문 작성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 원고분량은 논문작성지침에 의거한 규격용지 기준 국문원고 15매, 영문원고 20매로 제한한다.

라.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를 저자표기 가장 앞부분에, 나머지 연결저자는 논문집필의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마. 투고 시 원고 겉면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e-mail을 포함한 연락처를 명기하며,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바.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통합치료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불가판정 논문에 한해서는 일체의 심사내용을 통보하지 않는다.

사. 투고시 심사비 6만원, 게재 확정시 10만원(15쪽 기준)을 납부하며 15쪽(본 학술지의 편집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쇄쪽당 1만원씩 추가 납부한다.

아. 본 학술지 원고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통합치료연구] 투고 논문 작성 양식

1. 원고 작성 개요

가. 작성 도구: 한글 3.0 이상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나. 논문원고 용지

(1) 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190×260)

(2) 용지 여백: 위쪽 18, 아래쪽 20, 왼쪽 26, 오른쪽 26,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 0

다. 문단 모양 : 줄간격 170

라. 글자 모양

	글꼴	크기	장평	자간	문단정렬	비고
제목	신명조	18p	100	0	가운데	진하게
저자명	중고딕	10p	100	0	오른쪽	1줄 띄고
소속	신명조	9p	100	0	오른쪽	
요약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1줄 띄고 줄간격 140 좌우여백 :4
본문	신명조	11p	95	-5	양쪽정렬	
그림	중고딕	10p	95	-5	하단 가운데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명조
표	중고딕	10p	95	-5	왼쪽상단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명조
참고문헌 제목	견명조	14p	95	-5	가운데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영문초록 제목	신명조	14p	95	-5	가운데	
영문초록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부록제목	중고딕	10p	95	-5	왼쪽	진하게
부록내용	신명조	10p	95	-5	양쪽정렬	

마. 제목의 번호 붙임

- 1단계: I. II. III. …………… (2줄 띄고, 14p, 견명조, 가운데)
- 2단계: 1. 2. 3. …………… (1줄 띄고 1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진하게)
- 3단계: 가. 나. 다. …………… (1줄 띄고 2칸에서 시작, 9.5p, 신명조, 진하게)
- 4단계: (1) (2) (3) …………… (1줄 띄고 4칸에서 시작, 9p, 중고딕)
- 5단계: ㄱ. ㄴ. ㄷ. ……………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 6단계: (ㄱ) (ㄴ) (ㄷ) ……………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바. 들여쓰기

문단의 첫 문장은 3칸에서 시작, 문장과 문장 사이는 1칸으로 하고, 문단과 문단 사이는 1줄 띄지 않는다(“참고문헌”의 들여쓰기는 9칸에서 시작함).

사. 용어의 사용

- (1)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적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 속에 원어나 한자를 쓴다.
- (2)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성 있는 단어를 연속하여 나열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단어 바로 앞에 쉼표 없이 “그리고”, “와(과)”, “및”, “혹은” 등을 삽입한다.

2. 인용 사항

본문에 인용문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단어 및 구두점 등의 모든 사항이 인용되는 원문과 일치되어야 하며, 그 인용부분의 길이에 따라 다음 규정을 지킨다.

가. 인용내용이 짧은(1-2행) 경우 에는 본문 속에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기술하며, 인용내용의 끝에 인용출처(저자, 출판년도)를 밝힌다. 한 문장 내에서 내용을 축약하는 경우에는 반 칸을 띄운 후에 세 개의 공간점 “…”을 사용한다.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홍길동, 2003)

나. 인용내용이 긴(3행 이상) 경우 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이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와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띄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인용문의 출처는 “저자(출판년도)”를 먼저 밝히고 인용문을 적거나, 인용문 뒤에 “저자(출판년도)”를 표기한다.

예: 이승환(2005)은 언어병리학이 다학문적 학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수교육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등의 전문인들과 협력해야 하고, 나아가 의학의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과 팀을 구성해야 할 장애 유형도 많다. 그래서 상호 의뢰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3. 각주(脚註, footnote) 와 후주(後註, endnote)

가. 각주의 사용은 금한다.

나. 그 대신,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후주의 사용을 허용한다. 후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본문 내 해당되는 곳에 반 괄호를 붙인 어깨 숫자로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본문의 가장 뒤, 참고문헌 바로 앞에 기술한다.

4. 본문 내의 인용문헌

가. 직접 인용의 경우 : 인용부호(“ ”)를 달고 기술하며, 인용처(저자 및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예 1: 김영옥(2003)에 의하면 “.....”

예 2: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김영옥, 2003)

나. 간접 인용의 경우 : “저자”와 “출판년도”를 아래 예들과 같이 명기하되, 출판년도 표시의 괄호 앞 어절이 한글일 경우에는 괄호를 붙여 쓰고 (단, “참고문헌” 에서는 반 칸을 띄어 쓴다), 영어인 경우에는 반 칸 띄고 쓴다.

예 1: 이 이론에 대하여 고도홍(2003)은.....

예 2: 이 이론에 대하여 Pinker(1975)는.....

예 3: 한 연구(고도홍, 1995)에 의하면.....

예 4: 최근의 연구(고도홍, 1995; Boone, 1990)에 의하면.....

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 :

(1) 저자가 3인 이상 5인까지일 경우, 최종 저자 앞에 “및” 또는 “와/과”로 표기한다. 또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에는 한국인인 제 1저자의 성과 이름 뒤에 “등/외”를 표기하고, 외국인은 제 1저자의 성 뒤에 et al.을 표기한다.

예: 김수진, 윤미선 및 김정미(2002)는... 첫 인용
 김수진 등(2002)은... 반복 인용
 Boone, Hodson & Paden(1995)은... 첫 인용
 Boone et al.(1995)은... 반복인용

(2) 6인 이상이면 제1저자만 기재하고 “000 외”나 “0000 et al.”등으로 표시한다.

5. 참고문헌 작성법

가.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한, 중, 일, 기타 동양, 서양 문헌 순으로 열거한다. 서양 문헌작성의 경우 여기에서 규정한 형식 이외의 것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에 따른다.

나. 저자는 저자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시한다. 영문 이름의 경우에는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첫 글자만(예: Kim, H. K.) 표시한다.

다. 동일한 저자가 같은 해에 낸 다수의 논문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뒤에 영문 소문자를 써서 구별한다.

예: 2005a,

라. 단행본(연수회 교재, 발표회 교재 및 검사도구 포함)의 경우 :

(1) 국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1: 이승환(2005). 유창성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예 2: 심현섭, 신문자, 이은주(2004).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

(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2) 영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이탤릭체).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Van Riper, C. & Erickson, R. L.(1996). *Speech correction: An introduction to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Needham Heights, MA: A Simon & Schuster Co.

마. 단행본 속의 논문 또는 단원(chapter)의 경우 :

(1) 국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단원]명. 편집자[기관]명(편). 단행본명. 발행지: 발행처.

예: 김영태(2000). 조음음운장애 치료를 위한 임상이론.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편). 말·언어임상 전문요원교육: 조음음운장애 및 실어증 치료기법의 임상적 적용. 서울: 한학문화.

(2) 영문 : 위와 동일하나 출처인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아래 예와 같이 단행본저자의 이름을 표기하되, 단행본 저자가 1명인 경우에는 “(Ed.)”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Eds.)”로 표기.

예: Beeson, P. & Hillis, A.(2001).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written words*. In R. Chapey(Ed.), *Language intervention strategies in aphasia and related neurogenic communication disorders*(4th ed.). Baltimore, M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3) 단행본이 재판(再版)이상 : 단행본명 뒤의 ()안에 “3판” 혹은 “3rd ed.” 등으로 표기.

바. 정기간행물(학술지) 속의 논문의 경우 :

(1) 국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명. 논문수록 학술지명, 권(호) 번호, 페이지.

예: 장빛나, 김수지(2009). 타악기를 이용한 음악 활동이 유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13-226.

(2) 영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논문수록 학술지명(이탤릭체), 권(호), 페이지.

예: Kim, S. J.(2010). Music therapy protocol development to enhance swallowing training for stroke patients with dysphagia. *Journal of Music Therapy*, 57(2), 102-119.

사. 학위논문의 경우

(1) 국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위명. 학위수여대학.

예: 김민정(2004). 아동용 한국어 조음검사의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 병리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 영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명(이탤릭체). 학위명, 학교명 및 학교소재지.

단, 석사논문은 “master's thesis”로, 박사논문은 “doctoral dissertation”으로 표기한다.

예: Sim, H. S.(1996). Kinematic analysis of syllable repetition and sound prolongation in children who stut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아. 번역서의 경우

- (1) 원저자명(출판년도). 번역서명[원전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표기]. (역자명).
번역서의 출판지: 번역서의 출판사명.
예 1: 정옥란(역)(1993). 음성과 음성치료. 대구: 배영출판사.
예 2: 이승복, 한기선(공역)(2000). 의사소통 과학과 장애: 과학에서 임상실습까지. 서울: 시그마프레스.

자. 연수회, 특강 또는 학술대회 자료의 경우

- (1) 저자명(발표된 년도). 발표제목. 자료명. 발표장소.
예 1: 윤미선, 이봉원(2005). 한국어 어휘 특성에 따른 단어인식 검사에 대하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전북대학교, 전주.
예 2: Pae, S. & Yoon, H. J.(2005). Reading miscue analysis of the Korean second grader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ASHA) annual conference. San Diego, CA.

차. 기관이 저자인 경우 :

- (1) 국문 : 기관명을 저자로 명기(발행년도). 단행본명. 발행도시명: 기관명에 준하여 “동부”, “동 협회”, “동 학회” 등으로 표기.
예: 문화관광부(1999). 교과서의 어휘 분석연구 -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서울: 동부.
(2) 영문 :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발행처가 저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발행도시명: 을 적은 후에 “Author”라고 표기.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th ed.). Washington, DC: Author.

6. 표, 그림 및 부록

- 가. 표, 그림 및 부록에는 일련번호를 각각 붙이되, < >를 사용한다. 표와 그림은 본문 안에 삽입하고 부록은 참고문헌 뒤에 삽입한다.
예: <표 1>, <그림 1>

나. 표 및 부록의 제목은 상단 왼쪽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에 붙인다.

다. 표, 그림 및 부록을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때, 표와 부록의 경우에는 하단 왼쪽에, 그림의 경우에는 하단 중앙 제목 밑에 출처를 명기한다.

라. 부호를 사용할 때의 글씨체 및 띄어쓰기는 다음과 같다.

- (1) p, F, t는 신명조체의 이탤릭체로 쓴다. 단, M, N, SD는 신명조체의 정자체로 한다.
- (2) 부호 사이는 반 칸 띄어 쓴다(예: $p < .001$, $F(1,129) = 2.71$, $t = 4.52$).
- (3) *는 윗 첨자의 형태로 통계표 안의 t값과 표 밑의 p값을 제시할 때 쓴다.
(예: *t, * $p < .05$)

마.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값은 표 하단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한다. (예: $p = .003$)

7. 초록

가. 한글 논문의 경우

- (1) 한글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한글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 (2) 영문초록: 10줄 내외의 영문초록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 (3) 핵심어: 3-5개의 핵심어를 한글초록과 영문초록 밑에 쓴다.

나. 영문 논문의 경우

- (1) 영문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영문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 (2) 한글초록: 1쪽 이내의 한글초록(한글제목, 한글이름, 한글소속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 (3) Key Words: 3-5개의 핵심어를 영문초록과 한글초록 밑에 쓴다.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통합치료학회(The Korean Society of Interdisciplinary Therapy)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의 이론과 실체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치료학의 발전 및 회원의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당해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심리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학술지 발간
4. 학회발전을 위한 교육
5.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6.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상담심리, 놀이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가족치료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준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 전공 석사과정 중인 자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평생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서 정회원이 운영 재직하는 기관 및 치료전문기관으로서 본 회의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 7 조 (입회 절차)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원서 제출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3.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권리
4.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본 학회의 각종 출판물을 받을 권리
6. 기타 학회에서 인정한 권리

제 9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본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학회의 회장이 제명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 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무 : 1명
4. 감사 : 2명
5. 학술 및 편집위원회 위원장 : 1명
6.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 1명
7. 학제간 연구위원회 위원장 : 1명
8. 학교교육위원회 위원장 : 1명
9. 임상치료위원회 위원장 : 1명

제13조 (임원의 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집행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집행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여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하며 학회를 책임 운영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집행위원회에서 위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집행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집행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4장 기 구

제17조 (기구의 종류)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 회
2. 집행위원회
3. 상임위원회

제18조 (총회)

1.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보고
 - 4) 규약 및 제 규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5) 기타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
2. 총회는 그 기능의 일부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학술 및 편집위원회 위원장,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학제간 연구 위원회 위원장, 학교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상치료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 한다.

2.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 1) 회장과 감사를 총회에 추천한다.
 - 2)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의 자격을 심사 및 승인한다.
 - 3) 각종 규정 및 지도감독을 한다.
 - 4) 중요사업을 계획, 심의한다.
 - 5)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건의한다.
 - 6) 본 학회의 운영을 총괄 조정한다.
 - 7)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3. 감사는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4. 기타 집행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제 19조의 모든 사항은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0조 (상임위원회)

- 1) 학술 및 편집위원회
 - ①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② 임무: 학술지 발간 및 학술발표, 세미나 등 주관 및 교육
- 2) 국제교류위원회
 - ①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② 임무: 국제 교류 및 협력 주관 및 관리
- 3) 학제간 연구 위원회
 - ①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② 임무: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등의 다양한 치료분야간의 통합치료 모델 연구
- 4) 학교교육위원회
 - ①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② 임무: 학교교육 관련분야 연구
- 5) 임상치료위원회
 - ①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② 임무: 학교이외의 임상현장 관련분야 연구

제5장 회 의

제21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갖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집행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에서 투표권은 정회원, 평생회원에게 있다.

제22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평생회원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평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 (총회의 특례)

1.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집행위원회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집행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재 정

제25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학회운영 수익, 및 기타 찬조비 등으로 충당한다.
2. 회원 자격별 회비(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등)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하고 총

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 시까지 정지되며, 미납회비(당해년도를 포함한 3년분 미납 연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4.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5. 본 학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학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26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은 2008년 11월 1일부로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강순미(백석예술대학교)

편집위원 : 심혜원(한국상당대학원대학교)

통합치료연구 제6 2호

2015 2월 5일 인쇄

2015 2월 5일 발행

발행인 : ()

() 120-728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학교 경상관 4716호

Tel: 02-300-0881 / E-mail: anita0610@naver.com

인쇄처: 동문사

이 학회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통합치료학회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